

아동 · 청소년의 안전실태와 대응방안 연구

- 물리적 위해를 중심으로 -

연구책임자 : 김영한(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최은실(한국소비자원 생활안전팀장)

연구보조원 : 김윤정(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조원)

연구 요약

1. 연구목적

- OECD국가 중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안전사고 사망률은 최고 수준이다. 유니세프가 발표한 ‘부유국 아동상해사망’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26개국 가운데 상해 및 사고로 인한 아동사망률이 인구 10만명당 25.6명으로 가장 높고, 스웨덴(5.2명), 영국(6.1명), 일본(8.4명) 등의 선진국에 비해 4-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아동·청소년이 각종 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
- 이 연구는 아동청소년의 주요 활동의 중심이 되는 집주변(Home Zone), 통학로, 학교주변(School Zone)의 안전도를 기준으로 지역중심의 구체적인 아동·청소년의 안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취약지역, 취약계층, 취약가정의 안전수준 및 위험 현상을, 그렇지 않는 지역이나 계층 및 가정과 비교하여 조명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에서 잠재적 위험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 중심의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2. 주요 연구내용

- 이 연구는 아동·청소년의 거주 및 활동 지역의 입지적 특성과 아동·청소년 활동 공간의 물리적 위해도, 그리고 안전사고와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활동 공간(집주변, 통학로, 학교주변)별 안전체크리스트에 의한 안전도, 사고경험도, 유익 및 유해환경접촉도를 높이거나 낮추는 원인을 분석하고, 아동·청소년의 활동 공간 특성을 조사하여 활동 공간별 안전실태와 정책자료 제시, 지역의 입지적 특성에 따른 사고경험과 활동공간의 안전수준을 분석함.

-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을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안전대책의 중요 변수가 지역 즉, 용도구역임을 제시하였고, 추후 정책적 우선순위 선정에 아동·청소년 안전분야는 용도구역을 중심으로 안전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 연구가 제시하고 있는 전제조건은 다음과 같음.

- ① 취약지역, 취약계층, 취약가정의 아동·청소년은 사고나 위험한 상황이 더 많고 더 위험하다.
- ② 지역단위, 계층단위, 가정단위의 아동·청소년의 안전사고나 위험한 상황은 일정부분 공통적인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 ③ 아동·청소년의 주요 활동 지역은 Home Zone(집주변), 통학로, School Zone(학교주변)에 머무른다.

- 지역별 안전도를 보면 통학환경안전도는 농어촌지역이 가장 낮은 수준이고 다음으로 도시 내 주거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집주변 여가 및 놀이시설의 안전도는 도시 내 상업지역과 농어촌지역이 낮게 나타났고, 학교주변 안전도는 도시 내 상업지역이 가장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용도구역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안전도에는 차이가 있으며, 특히 농어촌지역과 도시 내 상업지역의 아동·청소년이 위험한 환경에 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용도지역별 유해환경 접촉도에서는 도시 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노출도가 높으며, 유익시설 접촉은 농어촌지역과 도시상업지역이 높음.

3. 정책제언

1) 청소년활동 영역

- 아동·청소년 안전사고의 주원인이 되는 스포츠·레저용품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 필요.

현재 빈발하는 청소년 안전사고를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면서 피해를 겪고 있는 자전거, 인라인 스케이트 등의 스포츠·레저용품의 품질 및 안전기준 강화가 필요함.

- 아동·청소년 안전사고 저감을 위한 통학환경 개선 방안 필요

아동·청소년들의 통학환경점검에서는 하교시 교통지도 인력 미비와 통학로 상의 위험 적체물 방치, 통학 또는 학원 승하차 장소 미비 등이 아동·청소년의 통학환경에서 개선되어야 함.

통학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 미설치(36.7%), 통학로 안전펜스 미설치(24.3%)등 통학로 안전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지켜지고 있지 않는 곳이 상당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도 필요.

- 아동·청소년의 거주지역에 따른 차별화된 안전정책 필요.

도시 내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은 충돌이나 충격을 받아 다친 사고, 날카로운 물체에 베이거나 찢린 사고, 추락/넘어짐/미끄러져 다친 사고의 발생이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이러한 안전사고의 주된 원인인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등 스포츠·레저용품의 품질 개선 및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변환경 점검(자전거 운행로 확보 등)과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공사 등으로 인한 위험 요인 점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 이용 시설 위험요인 제거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의 안전대책이 우선적으로 필요.

농어촌지역은 생산 활동 현장이 주거지역 및 통학로와 인접한 만큼 농로와 보행자 통로등의 구분 등을 점검하거나 농기계, 농약 등 농어촌지역에서만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등의 차별화된 안전정책이 필요.

● 청소년이 이용하는 여가 및 놀이시설 안전 강화 대책 .

여가 및 놀이시설에서 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 유형인 ‘물체에 눌리거나 끼인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토지·건물·설비(41.5%)임을 감안할 때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원 및 근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도입이 필요.

조사결과에서 여가 및 놀이시설 주변의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가 높았다는 점(51.8%)에 비추어 학교 주변과 함께 아동·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여가 및 놀이시설 등에 대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하는 방안이 요구됨.

● 문구점 등 안전사고 다발 물품을 제공하는 학교 주변 상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 모니터링 및 여론 환기 필요.

도시 내 상업지역에서 이물질 흡입·섭취사고와 부패·변질된 물질 접촉 사고의 빈도가 높은 것(52.6%)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경험비율이 가장 높았던 항목이 ‘학교주변에서 불량식품을 판매하고 있다(80.4%)’는 결과는 아직도 거주지와 학교주변의 상업장에서 청소년들에게 관련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물품 등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교와 거주지 주변의 문구점과 분식점 등 소형 영업장들은 일률적인 규제방안을 도입하기는 어렵고 그 실효성도 떨어지는 바, 학부모와 학교, 관계 기관 및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안전을 모니터링하고 여론을 환기시키는 활동이 계속 요구됨.

목 차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2. 연구의 내용	5
3. 연구의 모형 및 가설	7
1) 연구모형	7
2) 연구가설	8
4. 연구의 제한점	9
II. 연구의 방법	
1. 연구대상	13
2. 조사도구	14
3. 조사방법	16
4. 자료처리방법	16
III. 이론적 배경	
1. 아동청소년 안전의 개념과 현황	19
2. 아동·청소년 안전과 지역사회	23
3. 아동청소년 안전과 취약계층	26
4. 아동안전과 유해환경 접촉	28
IV. 조사결과와 분석	
1. 분석개요	37
1) 인구사회학적 특성	37
2) 사고유형별 경험율 및 사고장소	39
3) 사고 발생 시간대	41
4) 사고로 다친 부위	42
5) 통학 이동수단 및 이동시간	42
6) 통학환경 안전도	43
7) 여가 및 놀이시설 안전도	44
8) 유해시설 및 유익시설 노출도	46

9) 학교주변	47
10) 시간대별 활동장소	49
2. 용도지역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안전실태 분석	50
1) 용도지역과 활동공간 분석	50
2) 용도지역과 유해환경	60
3. 활동공간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안전실태 분석	64
1) 활동공간에 따른 사고경험	64
2) 유해시설 및 유익시설과 사고경험	66
3) 활동중단에 따른 유해환경	69
4. 용도지역 및 활동공간이 아동·청소년 안전에 미치는 영향	74
1) 활동공간 영역간의 상관관계 및 영향요인 분석	74
5. 가정환경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안전실태 분석	80
1) 부모님의 직업에 따른 안전실태 분석	80
2) 가정수준에 따른 안전실태 분석	88
6. 성별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안전실태 분석	93
1) 성별에 따른 안전실태 분석	93

V.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99
2. 정책제언	103
1) 아동·청소년 안전사고의 주원인이 되는 스포츠·레저용품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 필요	103
2) 아동·청소년 안전사고 저감을 위한 통학환경 개선 방안 필요 ..	106
3) 아동·청소년의 거주지역에 따른 차별화된 안전정책 필요 ..	109
4) 청소년이 이용하는 여가 및 놀이시설 안전 강화 대책 필요 ..	110
5) 문구점 등 안전사고 다발 물품을 제공하는 학교 주변 상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 모니터링 및 여론 환기 필요	112
6) 아동·청소년의 일몰 후 안전방안 강구	114
7) 안전 취약계층(도시 내 상업지역의 저소득 맞벌이 가정 등)의 자녀들을 위한 안전대책 방안 필요	114

참고문헌	118
------------	-----

부록1. 설문지	125
----------------	-----

표 목 차

<표 II-1> 조사대상 표집내용	14
<표 II-2> 설문지 문항구성	15
<표 IV-1> 조사대상자의 특성	38
<표 IV-2> 사고유형별 경험율 및 사고 장소	40
<표 IV-3> 사고발생 시간대	41
<표 IV-4> 사고부위	42
<표 IV-5> 이동수단	43
<표 IV-6> 이동시간	43
<표 IV-7> 통학 환경에 대한 안전도	44
<표 IV-8> 주변 여가 및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도	45
<표 IV-9> 유해 및 유익시설 노출여부	47
<표 IV-10> 학교주변에 대한 안전도	48
<표 IV-11> 시간대별 활동장소	49
<표 IV-12> 지역에 따른 사고경험	50
<표 IV-13> 지역에 따른 사고유형	51
<표 IV-14> 지역에 따른 통학이동수단	52
<표 IV-15> 지역에 따른 통학이동시간	53
<표 IV-16> 지역에 따른 통학환경에 대한 안전도	54
<표 IV-17> 지역별 여가 및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도	55
<표 IV-18> 지역에 따른 학교주변에 대한 안전도	56
<표 IV-19> 지역에 따른 시간대별 활동장소(도시 내 상업지역) ...	57
<표 IV-20> 지역에 따른 시간대별 활동장소(도시 내 주거지역) ...	58
<표 IV-21> 지역에 따른 시간대별 활동장소(공업지역)	59
<표 IV-22> 지역에 따른 시간대별 활동장소(농어촌지역)	60
<표 IV-23> 지역에 따른 유해시설(100점 기준)	61
<표 IV-24> 지역에 따른 유익시설(100점 기준)	62
<표 IV-25> 지역에 따른 1등급 유해시설 노출도(100점 기준) ...	63
<표 IV-26> 지역에 따른 2등급 유해시설 노출도(100점 기준) ...	63
<표 IV-27> 지역에 따른 3등급 유해시설 노출도(100점 기준) ...	64
<표 IV-28> 통학환경 안전도(100점 기준)와 사고경험	65

<표 IV-29> 여가 및 놀이시설 안전도(100점 기준)와 사고경험	65
<표 IV-30> 학교주변 안전도(100점 기준)와 사고경험	66
<표 IV-31> 유해시설 노출정도(100점 기준)와 사고경험	67
<표 IV-32> 유익시설 노출정도(100점 기준)와 사고경험	67
<표 IV-33> 등급별 유해시설(100점 기준)과 사고경험	68
<표 IV-34> 통학환경에 따른 유해시설 및 유익시설 노출실태 (100점 기준)	69
<표 IV-35> 여가 및 놀이시설에 따른 유해시설 및 유익시설 노출실태 (100점 기준)	70
<표 IV-36> 학교주변에 따른 유해시설 및 유익시설 노출실태 (100점 기준)	71
<표 IV-37> 통학환경에 따른 등급별 유해시설 노출실태(100점 기준)	72
<표 IV-38> 여가 및 놀이시설에 따른 등급별 유해시설 노출실태 (100점 기준)	72
<표 IV-39> 학교주변에 따른 등급별 유해시설 노출실태 (100점 기준)	73
<표 IV-40> 통학환경 안전도의 각 하위항목간의 상관관계	75
<표 IV-41> 여가 및 놀이시설 안전도의 각 하위항목간의 상관관계	77
<표 IV-42> 학교 주변 안전도의 각 하위항목간의 상관관계	78
<표 IV-43> 활동공간 영역 안전도간의 상관관계	79
<표 IV-44> 아버지 직업유무에 따른 통학환경 안전도 (100점 기준)	80
<표 IV-45> 어머니 직업유무에 따른 통학환경 안전도 (100점 기준)	81
<표 IV-46> 아버지 직업유무에 따른 여가 및 놀이시설 안전도 (100점 기준)	81
<표 IV-47> 어머니 직업유무에 따른 여가 및 놀이시설 안전도 (100점 기준)	82
<표 IV-48> 아버지 직업유무에 따른 유해시설 노출 (100점 기준)	83
<표 IV-49> 어머니 직업유무에 따른 유해시설 노출 (100점 기준)	83
<표 IV-50> 아버지 직업유무에 따른 유익시설 노출 (100점 기준)	84
<표 IV-51> 어머니 직업유무에 따른 유익시설 노출 (100점 기준)	84
<표 IV-52> 아버지 직업유무에 따른 등급별 유해시설 노출 (100점 기준)	85
<표 IV-53> 어머니 직업유무에 따른 등급별 유해시설 노출 (100점 기준)	86

<표 IV-54>	아버지 직업유무에 따른 학교주변 안전도 (100점 기준) ...	87
<표 IV-55>	어머니 직업유무에 따른 학교주변 안전도 (100점 기준) ...	87
<표 IV-56>	가정수준에 따른 통학환경 안전도 (100점 기준) ..	88
<표 IV-57>	가정수준에 따른 여가 및 놀이시설 안전도 (100점 기준) .	89
<표 IV-58>	가정수준에 따른 유해시설 노출 (100점 기준) ..	89
<표 IV-59>	가정수준에 따른 유익시설 노출 (100점 기준) ..	90
<표 IV-60>	가정수준에 따른 등급별 유해시설 노출 (100점 기준) ...	91
<표 IV-61>	가정수준에 따른 학교주변 안전도 (100점 기준)	92
<표 IV-62>	성별에 따른 통학환경 안전도 (100점 기준)	93
<표 IV-63>	성별에 따른 여가 및 놀이시설 안전도 (100점 기준) .	94
<표 IV-64>	성별에 따른 유해시설 노출도 (100점 기준)	94
<표 IV-65>	성별에 따른 유익시설 노출도 (100점 기준)	95
<표 IV-66>	성별에 따른 등급별 유해시설 노출도 (100점 기준) ...	96
<표 IV-67>	성별에 따른 학교주변 안전도 (100점 기준)	96

그림 목 차

[그림 I-1] 연구모형	8
[그림 III-1] 학년별 어린이 사상자 구성비 비교	22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내용
3. 연구의 모형 및 가설
4. 연구의 제한점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OECD국가 중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안전사고 사망률은 최고 수준이다. 유니세프가 발표한 ‘부유국 아동상해사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26개국 가운데 상해 및 사고로 인한 아동사망률이 인구 10만명당 25.6명으로 가장 높고, 스웨덴(5.2명), 영국(6.1명), 일본(8.4명) 등의 선진국에 비해 4~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아동·청소년이 각종 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통계라 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여정부는 2003년 6월에 ‘아동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그 결과 아동·청소년의 사망률은 8.3명으로 줄어들었으나 OECD 평균(7.3명) 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곽숙영, 2006).

또한 아동·청소년안전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은 2조136억원이며, 이는 18세미만 아동·청소년 1인당 약 16억8천만원의 손실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한 안전사고로 인한 직접의료비용은 950억원으로 추계되었다(김승권외, 2008).

이와 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 안전사고 실태는 여전히 명확하게 파악되고 있지 않으며, 대책 마련에 따른 효과도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금까지 이루어진 안전사고 실태 파악을 보면, 전국의 병원이나 경찰서, 소방서 등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대책마련에 있어서도 안전사고 유형별 즉, 익사, 자살, 교통, 식품, 보건, 미아 등에 대해 개별적인 대책 수립이 주를 이루고 있다. 물론 이러한 대책은 어느 정도 해결방안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사고유형별의 재발을 위한 개별적인 접근방식과 대책 마련은 그때그때 이루어지는 대중적인 해결방안으로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대책은 매우 미흡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사건유형 중심보다는 아동청소년이 주로 보내고 있는 곳 즉, 행동반경을 중심으로 한 지역중심의 근본적인 안전사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자는 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안전하지 못한 장소나 상황으로부터 발생하며, 그러한 장소는 안전수준이 높은 지역이나 사회적 계층 및 가정보다는 그렇지 못한 취약지역이나 취약계층 또는 취약가정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사고 발생율과 위험에 직면한 상황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며, 이들 지역이나 계층을 중심으로 한 집중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국가적 차원의 안전사고 발생율을 낮추고, 보다 효과적인 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와 관련하여 Roberts외의 연구(1996)에 따르면 손상위험의 불균등한 분포는 지역 간, 국가 간 및 국내 간에 뚜렷하게 나타나며, 지역별, 국가별 차이 이외에도 인구집단 및 특정하위 그룹 간에도 사회적, 경제적 불균형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하였다. 빈곤은 어린이들에게 발생하는 대부분의 손상 및 폭력의 주요한 위험요인으로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박혜숙외, 2006 재인용).

또한 근래의 사고에 대한 관점은 사고요인과 환경이 상호영향을 미치는 역학적 관점에서 보아야 하며 이들을 적절하게 조절하거나 차단시키면 예방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즉, 사고는 손상을 유발하며, 우연히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고위험 집단에서 고위험환경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질병예방과 마찬가지로 예방이 가능한 보건학적 문제라는 인식이다(송현종, 2006 재인용).

이러한 관점은 사고는 예방가능하며, 그 방안은 사고유형별 개별적 접근보다는 취약지역이나 취약계층 및 취약가정 등 사고위험이 높은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최근의 연구에서도 사고나 범죄 방지를 위한 접근 방안은 사고유형별 개별적인 접근보다는 지역환경이나 공동주택 또는 도시지역 등 전체적인 입장에 사고 방지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이는 보다 포괄적인 접근으로 선진국에

서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건강한 사회 만들기’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즉, ‘환경계획을 통한 범죄 예방’을 통해 도시계획이나 공동주택개발 등을 수행할 때 사고와 범죄방지를 위한 설계를 의무적으로 포함토록 하고 있다(강민완,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주요 활동의 중심이 되는 집주변(Home Zone), 통학로, 학교주변(School Zone)을 기준으로 지역중심의 구체적인 아동·청소년의 안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취약지역, 취약계층, 취약가정의 안전수준과 및 위험 현상을 그렇지 않는 지역이나 계층 및 가정과 비교하여 조명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에서 잠재적 위험상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지역 중심의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

위의 아동·청소년의 활동반경을 기준으로한 지역중심의 안전사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연구내용을 수행하고자 한다.

첫째는 지금까지 제시된 아동·청소년의 안전사고 실태에 대한 선행연구 자료에 대한 분석을 한다. 현재 안전사고와 관련된 국가통계는 주로 안전사고와 관련된 물리적 조건과 상황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의 ‘아동안전종합대책’ 관련통계와 더불어 경찰청 등 정부 12개 부처 및 한국소비자원 등의 민간통계가 폭넓게 구축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 안전사고 관련 물리적 환경과 조건에 대해서는 2차 자료 분석을 통하여 개별사고에 대한 현황을 제시한다.

둘째는 주요 선진국의 아동·청소년 안전정책의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사고율이 높은 안전사고 유형에 대한 사례를 분석한다.

이것은 국제사회에서의 아동·청소년의 안전문제는 ‘아동권리협약’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이를 수행해야할 의무가 있는 국가로써 선진국의 동향에 맞출 필요가 있다.

그 예로 지역사회 환경개선을 통한 안전사고 대책 마련 분야는 우리나라는 초기시행 단계인데 반해 선진국에서는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지금에 와서는 뚜렷한 효과를 보고 있다.

셋째, 취약지역, 취약계층, 취약가정과 그렇지 않는 지역, 계층, 가정과의 안전실태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잠재적 안전사고 발생 위험상황에 대한 지역 위험환경 개선 차원의 예방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취약지역에 대한 구분은 용도구역 구분에 따라 도시 내 상업지역, 도시 내 주거지역(전용주거지역), 공장지역, 농어촌지역 4가지 지역 특성으로 구분하고, 다음으로는 가정보호기능(부모님의 직업)과 소득에 따른 계층(가정수준)에 따른 계층으로 구분한다.

특히, 이 부분의 분석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을 가진다.

- ① 취약지역, 취약계층, 취약가정의 아동·청소년은 사고나 위험한 상황이 더 많고 더 위험하다.
- ② 지역단위, 계층단위, 가정단위의 아동·청소년의 안전사고나 위험한 상황은 일정부분 공통적인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 ③ 아동·청소년의 주요 활동 지역은 Home Zone(집주변), 통학로, School Zone(학교주변)에 머무른다.

이러한 전제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주요 활동지역인 집주변과 통학로 그리고 학교주변에서의 사고경험과 위험한 상황에 대한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통한 조사·분석에 따라 지역 중심의 안전종합대책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 학교를 제외한 이유는 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나 지역교육청 중심 별도의 안전대책이 수립하고 있으며, 가정은 사유지역으로 공공의 측면에서 대안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3. 연구의 모형 및 가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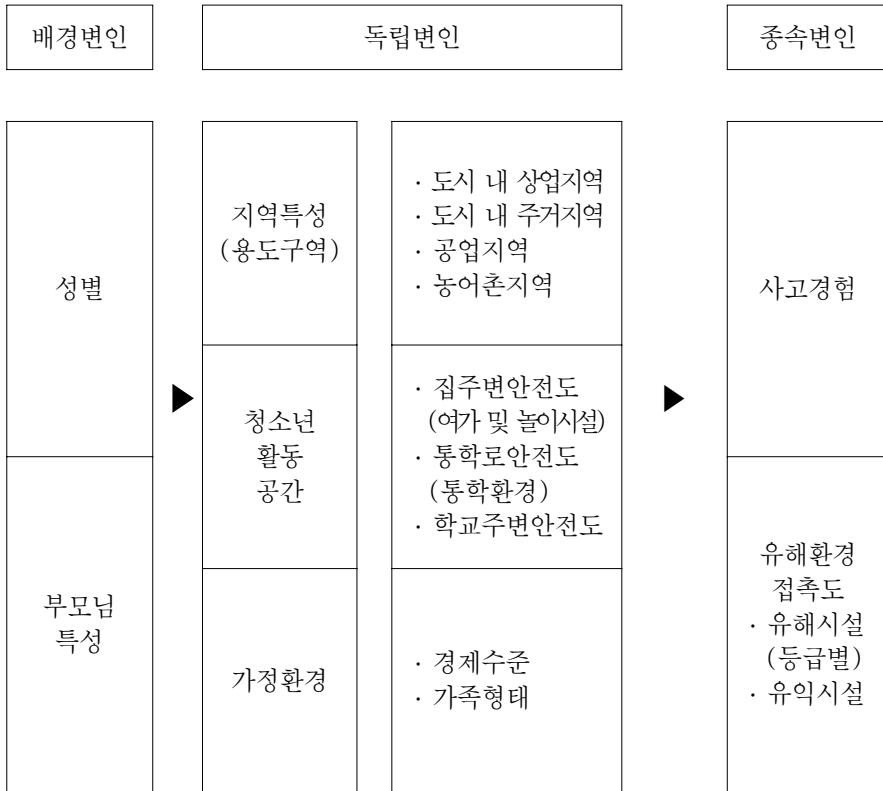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 아동·청소년의 주요 활동공간인 지역특성 유형, 아동·청소년의 활동시간과 물리적인 위해환경과의 관계를 규명하고, 이에 따른 안전대책을 제시하는데 있다.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 아동·청소년의 주요 활동공간인 지역특성 유형, 아동·청소년의 활동시간과 물리적인 위해환경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분석한 연구모형은 [그림 I-1]과 같다.

본 연구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은 성별, 가족관계, 가정경제, 부모학력, 부모직업유무로 구분하였으며, 독립변인으로는 지역특성에 관한 변인으로 학교의 입지적 특성을 4가지 용도구역(도시 내 상업지역, 도시 내 주거지역, 공업지역, 농어촌지역)구분 변수와 청소년의 주요 활동공간변수를 3가지로 구성(집주변 놀이 및 여가시설 환경 수준, 통학로 환경, 학교주변의 위험 환경수준),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활동시간대를 선정하였다.

종속변인으로는 사고경험, 유해환경등급별 접촉도, 유익환경 접촉도, 활동공간별(집주변, 통학로, 학교주변) 안전도이다.



[그림 1-1] 연구모형

2) 연구가설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의 주요 활동공간이 지역의 입지특성과 활동공간의 안전도, 그리고 가정환경이 사고경험과 물리적 지역 환경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연구모형에서 제시한 변인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아동·청소년이 거주하는 지역 특성에 따라 집주변(여가 및 놀이 시설), 통학로(통학환경), 학교주변안전도, 사고경험, 유해 및 유익환경 접

축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활동하는 공간(집주변(여가 및 놀이시설), 통학로(통학환경), 학교주변)의 안전도에 따라 사고경험과 유해 및 유익환경 접촉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가정환경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활동공간(집주변(여가 및 놀이시설), 통학로(통학환경), 학교주변)의 안전도와 사고경험, 그리고 유해 및 유익환경 접촉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4. 아동·청소년이 거주하는 지역 특성 중 취약지역은 아동·청소년활동공간의 안전도, 사고경험, 유해환경 접촉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설 5.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활동공간(집주변(여가 및 놀이시설), 통학로(통학환경), 학교주변)의 안전도는 아동·청소년의 사고경험, 유해 및 유익환경 접촉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설 6. 가정환경은 아동·청소년의 활동공간(집주변(여가 및 놀이시설), 통학로(통학환경), 학교주변)의 안전도, 사고경험, 유해 환경 접촉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의 주요 거주 공간의 지역의 물리적 위해 특성과 아동·청소년의 활동공간의 안전도가 아동·청소년의 사고경험이나 유해환경 접촉과의 관계 규명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따른다.

첫째, 본 연구는 위에서 세 가지 전제조건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세 가지

전제조건은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설명은 전제 조건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은 도시계획서에 따른 4가지 용도구역으로 구분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지역별 아동·청소년에 한하여 제한된 선택 조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그 외 지역에 대한 연구결과의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제시된 변인이외의 안전사고유형이나 활동공간별 안전수준, 유해환경의 접촉 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인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한 안전수준이나 사고유형, 유해환경 접촉 건수에 대한 변화 가능성은 통제할 수 없다.

Ⅱ. 연구의 방법

1. 연구대상
2. 조사도구
3. 조사방법
4. 자료처리방법

II.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의 거주 및 활동지역의 입지적 특성과 아동·청소년 활동공간의 물리적 위해도, 그리고 안전사고와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활동공간(집주변, 통학로, 학교주변)별 ‘안전체크리스트’에 의한 안전도, 사고경험도, 유익 및 유해환경접촉도를 높이거나 낮추는 원인을 분석하고, 아동·청소년의 활동공간 특성을 조사하여 활동공간(집주변(여가 및 놀이시설), 통학로(통학환경), 학교주변)별 안전 실태와 정책자료 제시, 지역의 입지적 특성(도시 내 상업지역, 도시 내 주거지역, 공업지역, 농어촌지역)에 따른 사고경험과 활동공간의 안전수준을 분석하여 지역차원의 예방대책 및 정책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한 연구대상, 조사도구, 조사방법, 자료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2009년 현재 도시계획상 용도구역을 도시 내 상업지대, 주거전용지대, 공업지대, 농촌지대(이하 도시 내 상업지역, 도시 내 주거지역, 공업지역, 농어촌지역)에 대하여 층화할당무선표집법을 이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조사대상은 총 1,200명으로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표 II-1> 조사대상 표집내용

용 도 구 역	조사인원	지역
도시 내 상업지역	300명	서울시 중구 대학로 주변 100명 대구시 중구 동성로 주변 100명 광주시 북구 용봉동 주변 100명
도시 내 주거지역	300명	서울시 양천구 목동 100명 대구시 수성구 시지동 100명 광주시 동구 사직동 100명
공업지역	300명	경기도 안산시 안산공업단지 내 100명 광주시 광산구 하남산업단지 내 100명 경북경산시 진량공업단지 주변 100명
농어촌지역	300명	경기도 여주군 읍면소재 100명 전라남도 장수군 읍면소재 100명 경상북도 청도군 읍면소재 100명

2.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주요 활동공간인 지역특성 유형, 아동·청소년의 활동시간과 물리적인 위험환경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자료수집 도구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조사도구인 설문지는 활동공간의 특성에 따라 집주변은 ‘경제정의 실천연합의’의 아동환경진단 체크리스트, 이동통로(통학로)는 ‘아동안전협회의’의 보행안전체크리스트, 학교주변은 한국생활안전연합의 ‘스쿨존 체크리스트’를 중심으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하여 보완하였다.

유해환경 접촉도는 ‘청소년 기본법’에 제시된 유해환경등급에 따른 제시표를 활용하였고, 사고유형 구분은 ‘산업안전관리공단의 기준’에 따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한 설문지는 인구통계학적 배경변인 5문항, 독립변인으로 용도구역 1문항, 활동공간(여가 및 놀이시설 안전도체크리스트 13문항, 학교 주변 환경 안전 체크리스트 9문항, 이동로(통학로) 안전 체크리스트 9문항) 활동시간대 1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종속변인으로는 사고경험 1문항, 유해 환경 접촉도(1등급, 2등급, 3등급 구분) 및 유익환경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II-2> 설문지 문항구성

변인	조사영역	세부내용	문항수
독립변인	용도구역	도시 내 상업지역	
		도시 내 주거지역	
		공업지역	
		농어촌지역	
	활동공간	여가 및 놀이시설 안전체크리스트	13
		통학로 안전 체크리스트	10
		학교주변환경 안전체크리스트	9
	활동시간대	활동시간대별 장소	8
종속변인	유해 및 유익환경접촉도 (등급별)	1등급 유해시설	5
		2등급 유해시설	
		3등급 유해시설	
		유익시설	7
	사고경험유무		
인구사회학적 변인	성별		
	가족형태		
	부모님학력		
	부모님직업유무		
	가정경제수준		
	성적		
안전사고유형 및 사례	사고유형별 장소		10
	사고유형별 사고시간대		10
	신체부위별 사고경험유무		7
	통학 이동수단 및 이동소요시간		2

3. 조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규명하기 위한 설문지는 2009년 9월 13일부터 9월 21까지 각 지역의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 이해가 부족할 수 있는 초등학교생들을 위해 충분한 설명한 후 자기평가 기입법으로 조사하였다. 무응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회수 시 확인하여 수정토록 하였다.

설문조사는 사전에 학교의 허락을 얻은 후 직접 방문하여 담당교사에게 충분히 설명 후 조사자가 직접설문지를 배포한 다음 현장에서 작성하도록 하였다.

4. 자료처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인 아동·청소년의 주요 활동공간인 지역특성 유형, 아동·청소년의 활동시간과 물리적인 위험환경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자료처리 방법은 window spss pc 12.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자료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변수의 하위 요인별 빈도와 백분율 분석을 하였다.

둘째, 용도구역별(지역특성), 계층별(소득차이, 부모학력차이), 활동공간별(여가 및 놀이환경, 통학환경, 학교주변환경), 안전사고유형별 사고경험과 건수, 활동시간, 위험환경접촉도에 대해 빈도와 백분율, χ^2 (카이스퀘어)검정을 하였다.

셋째, 활동공간영역간의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설문문항의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넷째, 가설 검증을 위한 유의수준은 .05로 한다.

Ⅲ. 이론적 배경

1. 아동청소년 안전의 개념과 현황
2. 아동청소년 안전과 지역사회
3. 아동청소년 안전과 취약계층
4. 아동청소년 안전과 유해환경 접촉

Ⅲ. 이론적 배경

1. 아동청소년 안전의 개념과 현황

오늘날 눈부신 과학 기술의 발달은 많은 기계와 설비의 개발로 인간에게 편리함을 가져다주지만 사회의 복잡성과 위험성은 증가되어 많은 사고발생과 더불어 인명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정의에 의하면 사고란 ‘알아볼 수 있는 상처를 입히는 우발적 사건’이라 하고, 미국안전협회(NSC)는 ‘인간에게 상처 또는 사망이나 재산의 손실을 가져오는 예측하지 못한 사건의 결과’라고 정의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안전사고는 아동 사망원인의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아동 안전사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병원에 오는 15세 이하 환자 5명 중 1명은 사고로 인한 것이며, 교통사고, 추락사고, 익사 등 아동의 안전사고는 생활환경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김신정, 2001).

한혜경(1997)에 따르면, 안전사고에 대비되는 아동안전이란 ‘아동이 신체적 상해가 없이 건강하게 보호되는 수준’을 의미한다. 물론 넓은 의미의 아동안전이란, 단순한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인 문제로부터도 보호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선진국의 아동안전정책은 확대받거나 방치되는 아동이 없도록 하는 아동보호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일찍이 아동·청소년의 안전은 사회적 책임으로 부각됨으로써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정책과제가 되고 있다. 2003년부터 실시된 아동안전종합대책과 관련해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2007)이 새로운 법령으로 제정되고, 예산규모도 2003년(1523억)에 비해 2007년(2746억)에는 80.3% 증액되었다. 또, 아동·청소년안전종합대책수립 및 추

진의 일환으로 안전사고 현황 및 원인분석 통계자료들은 과거에 이어 더욱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현재 안전사고와 관련된 국가통계는 보건복지가족부등 정부부처 및 한국 소비자자원 등의 민간통계가 폭넓게 구축되어 있으나 이는 주로 안전사고와 관련된 물리적 조건과 상황에 대하여 안전사고유형 및 실태분석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매년 생산되는 것이 아니다. 또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안전사고의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임이 중요하다고 합의되고 있지만 대부분 사건별, 유형별로 실태를 나열하는 정도이다.

한혜경(1997)은 아동안전사고발생현황을 선진외국과 비교했을 때 일본과 영국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하였으며(한국 1,958명, 일본 1,125명, 영국 404명), 교통사고, 화재, 익사, 추락사고 등 사고별 사망률을 비교하였을 때 교통, 익사사고 사망률이 외국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노정근(1998)은 학교안전사고증가추세에 따라 학교안전실태를 학급별, 사고원인별, 유형별 로 분석하고 실습과 현장학습 등에서의 사례들을 기술하여 사건사고별로 분석하여 사고를 감소,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질병관리본부 손상감시정보(2005)결과를 보면, 0-14세 아동 환자 수는 22.3%(1,739명)로 주로 운수, 추락 사고를 경험하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중증도가 더 크게 나타나 입원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1-14세 아동사망은 10만명당 8.3명, 입원은 834.1명, 1-17세 아동·청소년은 1,139명으로 전체연령대의 사망률의 약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의 실태조사(2007)는 사고유형별 통계현황을 분석하면서 사례를 가지고 예방대책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아동·청소년의 안전사고나 안전에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있어왔지만, 대체로 실태조사에 관심을 둔 경우가 많았고(박영신, 2003), 아동안전사고의 현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시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송현중, 2006). 지적하듯이 아

동 사망율은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주요선진국에 비해 아동사고율이 높은 우리나라 추세는 아동·청소년 안전사고실태 및 통계자료마련에 노력해왔지만, 단순한 분석 뿐 아니라 유형별 대책마련 등의 실태자료에 대한 상세한 검토 및 이해의 필요가 있다고 해석된다. 특히, 사고율이 높은 유형에 따라 대책을 분석하는 것은 미흡한 실정이므로 다양한 안전사고유형을 이해하고 나누어 살펴보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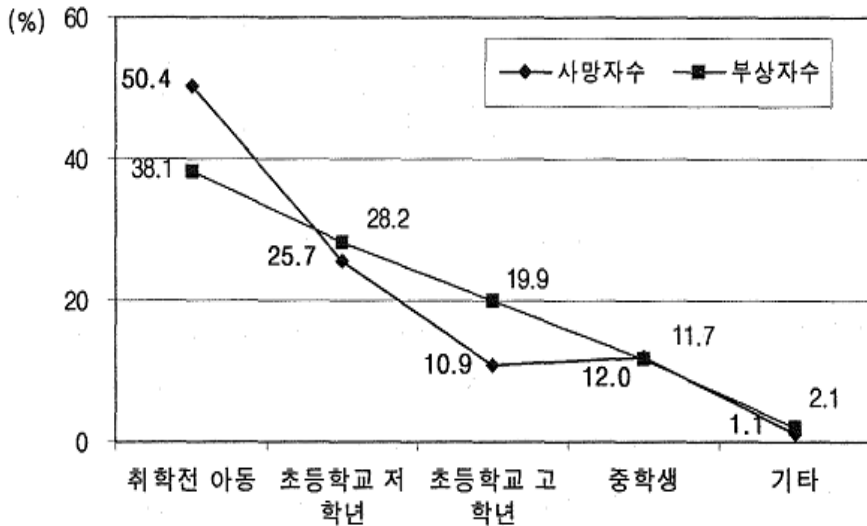
실제로 아동의 사고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응과 모니터링을 통한 사고 재발방지를 감시하는 등의 관리체계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서는 전무한 상황이다(권기창외, 2006).

아동안전관련 통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지표개발과 위해요소중점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내 통계 및 대책마련에 대한 평가 분석을 위한 평가체제가 도입될 필요가 제기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러한 시스템들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개발되어져 있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아동안전사업에 대한 추진기관은 보건복지부를 비롯하여 국가개별부처 및 NGO단체 등에서 수행되어지고 있어 이들 기관의 유기적인 연결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인프라 구축 및 네트워크 형성과 사고유형별, 연령별, 가정, 지역사회, 학교 등의 환경별로 아동안전사고통계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조사연구전담조직이 필요하며 모니터링 되어야 한다는 것이 선행연구(김승권외, 2008; 송현중, 2006; 권기창외, 2006)에서 주목하고 있는 사항이다.

통계청 사망통계자료(2005)에 의하면 안전사고로 인한 아동의 사망사고로 가장 흔한 유형은 교통사고(47.2%, 4,458명)로 이는 전체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수치였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2005)의 교통사고 통계분석결과에 의하면 보행 중 사망아동은 74.7%, 부상자는 50.2%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행아동 사망자의 사고발생지점에서 집까지의 거리와 관계를 분석해본 결과를 살펴보면, 취학 전 아동은 집에서 100M 이하, 초등학생은 500M - 1,000M이하, 중학생은 500M 이하의 거리에서 가장 많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의 교통수단이 대부분 보행임을 고려하였을 때 초

등학교 중심의 어린이보호구역 대상구역 지정에서 벗어나 놀이를 위한 공원 접근, 학원통행 등 어린이의 일상적인 통행 루트를 고려하여 보행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김승준, 2007).



[그림III-1] 학년별 어린이 사상자 구성비 비교¹⁾

한국생활안전연합의 슬로우 캠페인 조사(2007)에서도 전국 초등학교 24.8%가 교통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하교 시 평소에 비해 2.4배 정도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장소별로는 집주변이 53.1%, 학교주변이 39.5%로 파악되었다. 한국소비자원의 CISS 결과에서도 14세 이하 아동의 가정 내 사고는 60.8%, 6세 이하 아동은 82.3%로 나타났으며 이 밖에도 기존의 연구들은 가정 내, 학교영역의 안전사고유형에 관한 것이 일반적이다. 가정 내, 학교 내 영역은 장소별 가장 높게 발생하는 아동안전사고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2007),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예방 대책에 관한 연구

본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안전영역은 매우 광범위함으로 협의의 아동 안전 개념을 채택하여, 주요사고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을 때 아동·청소년의 행동반경이 집 주변(Home Zone), 학교주변과 통학로 및 어린이보호구역(School Zone), 학교 내 취약지역, 지역사회에 머무른다는 것을 전제한다.

2. 아동·청소년 안전과 지역사회

위험은 더 이상 특정지역과 특정 집단의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 널리 퍼지는 전 지구적 현상이고 점점 더 비가시적인 것으로 되어가고 있다(심영희, 1998). 국제사회에서의 아동·청소년의 안전문제는 ‘아동권리협약’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서구 선진국에서는 안전사고 및 손상예방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송현중, 2006), 민간과 정부의 공동 활동으로 아동 및 안전사업과 관련하여 광범위하게 진행시키고 있다(권기창, 2006).

스웨덴은 아동사고방지를 위한 합동위원회(Swedish Joint Committee on Childhood Accident Prevention)를 설치하여, 안전관련 사고와 지식, 관심을 증대시키는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아동환경위원회(National Child Environment Council)를 설립(1981년)하고, 법률재평가작업(Berfenstam & Soderquist, 1991) 등을 통해 아동이 안전한 환경마련과 아동안전법규 강화에 기여하였다. 현재는 유럽아동안전연맹(European Home Safety Alliance)설립하여 유럽회원 27개국들로부터 아동안전정보와 실천적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김승권외, 2008),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본부를 두어 익사사고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EU국가가 함께 통일된 내용과 소리를 전달하는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윤선화, 2003).

미국은 주정부차원에서 아동안전네트워크(Child Safety Network) 전국 상해 폭력방지자원센터(National Injury and Violence Prevention Resource Center)를 설립하고, 연방정부에서는 미보건성(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질병통제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산하 국립상해예방관리센터(National Center for Injury Prevention and Control)를 설립하여(Sleet, Bonzo, & Branche, 1998) 이분화된 아동·청소년 안전 관련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미국의 아동안전네트워크(CSN)에서는 각종 사고의 원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연구 조사활동과 정책 활동, 그리고 주 및 지방 안전담당자를 대신하여 연방기관 내에서 대변자 역할을 수행하는 등 아동의 안전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나가는 조직이 구성되어 있다(윤선화, 2003).

영국에서는 ‘Saving Lives; Our Healthier Nation’이라는 공중보건전략의 중점 관리 분야에 사고를 포함하였다. 2004년 세계보건의 날 주제를 ‘도로교통안전’으로 선정하고 도로교통안전을 위한 향후 5년 동안의 사업전략을 발표하여, 도로교통사고에 대한 장기간의 역학적 모니터링, 운전자 및 보행자를 위한 예방중재프로그램 개발, 도로교통안전 관련 연구의 지원을 그 내용으로 하였다(송현중, 2006). 또한 김승권외(2008)에서는 부모, 가족, 보호자가 아동에게 안정된 환경을 조성해주도록 강조하고 지표 및 점검기준을 설정하여 안전정책을 수립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고된다.

이처럼 스웨덴, 미국, 영국등과 같은 선진외국에서의 아동·청소년 정책에 대한 연구들은 우리나라에 적용가능한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위한 정책방향과 시사점을 모색하도록 해준다.

반면, 기존의 연구들은 선진 외국의 아동·청소년 안전관련 법과 정책을 개관적으로 정리, 분석하고 있거나 교통안전 등의 분야별로 나누어 국내의 상황에 시사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내용은 효과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외국 사례들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정책 및 제도에 관한 분석 중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사례 및 우리나라의 안전사고율이 높은 사고유형별 대책을 시사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보다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실제로, 한국시정개발연구원(2007)에 따르면, 영국의 경우 집 주변(Home Zone)의 기본원리를 ‘거주민들의 거리’로 정하여 거기를 단지 교통

소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한 장소로 조성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여 어린이 놀이의 기회를 증가시키고, 차량 중심환경을 개선하여 안전한 주거지역으로 변화시키고 아동, 노약자, 장애인 등 보행자 약자의 이동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정책을 마련하였다.

아동단체협의회의 자료(2008)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Pennsylvania주 현행법은 어린이보호구역(School Zone) 내 최고속도인 17.6km를 넘으면 최고 5백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며 운전자에게 벌점 3점을 주고, 두 번째 위반시는 두 달간의 면허가 정지되도록 하고 있다. 반면 California주 어린이보호구역(School Zone) 관련 현행법은 스쿨버스 정차 시 정지 사인(Sign) 판이 튀어나와 뒤따르던 차량은 물론 반대 차선을 달리던 차도 멈춰서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벌금 천 달러를 물고 1년간 면허정지처분을 받는 등 국내에 비해 통학로 교통안전정책이 강화되어 있다.

이와 같이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안전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과 시사점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요 선진국의 아동·청소년 안전정책의 동향을 파악한 것을 바탕으로하여 우리나라의 사고율이 높은 안전사고유형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3. 아동청소년 안전과 취약계층

최근 사고에 대한 관점은 사고 요인과 환경이 상호영향을 미치는 역학적 관점에서 보아야 하며 이들을 적절하게 조절하거나 차단시키면 예방 할 수 있다고 주장된다. Roberts 외(1996)나 송현종의 연구(2006)에서도 사고는 우연히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고위험 집단이나 고위험환경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취약지역, 취약계층, 취약가정이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높을 것이라는 전제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과 관련하여 한혜경(1997)은 크게 안전사고의 유형은 장소요인과 물건요인을 중심으로 그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있는데 가정 내, 학교, 보육시설, 놀이시설, 거리나 야외시설을 장소로 인한 유형과 식품, 장난감 등의 물건으로 인한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 이러한 안전사고유형은 연령별, 장소별로 차이가 있다고 보고한다.(보건복지부, 2007).

권기창외(2006)의 연구에서는 2000 - 2004년(5년간) 아동의 안전사고에 의한 사망자를 도시, 농어촌간에 비교한 결과 도시와 농촌의 지역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도시지역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과 같은 지역간·계층간·가정간 안전사고 격차 심화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고유형별 대책이 부분적인 개별대책에 머무르고 있으며, 지역차원의 포괄적인 대책으로는 미흡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최근의 안전에 관한 대책 마련은 사고가 환경과 밀접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으므로 환경개선을 통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마련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박현호(2006)는 10년간 경찰범죄 추세 통계와 30년간 범죄자 검거율 분석에서 현재의 지역 환경이 위험으로부터 취약해져 간다고 제시하고 있다. 최근의 제주도 초등학생 성추행사건, 인천 연수구 아동 유괴

살인 미성연자 성폭행사건 등은 우리의 아동청소년이 지역사회로부터 얼마나 보호받지 못하는가를 잘 나타내고 있다.

최근 CPTED(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에 대한 관심은 지역사회의 공간과 범죄와의 상관성이 증명됨으로써 부분적으로는 공동주택 등 개별 공간 설계에서 전체적으로는 도시설계나 개발에 이르기까지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역중심의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박현호(2006)).

이러한 CPTED란 기본개념은 뉴먼의 방어공간 개념에서 출발하여 물리적 환경과 범죄와의 상관관계를 연구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기법이다. 최근에는 지역사회에서의 물리적 설계 및 사회운동전략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위험관리제도의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학교 및 교통체계와 같은 특수한 도시하부체계는 물론 더욱 중요한 도시특별지구나 주거지역을 위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주민의 참여나 예방 전략 등에 적용하고 있다.(김동호, 2005 재인용)

구체적으로 아동청소년분야에서의 CPTED 기법은 단순히 CCTV설치에서부터 광범위하게는 지역에서의 ‘아동청소년의 친화적 도시 만들기 운동’ 등 지역사회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김영한,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간·계층간·가정간에 안전사고 발생수준과 예방대책에는 차이가 있음을 전제로 지역간 즉, 도시계획 용도지구를 전용주거지역과 도심상업지역 그리고 공장지대로 구분하고, 계층(소득과 학력)간은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을 구분하여 안전 실태를 비교분석하고, 지역간·계층간 안전실태의 차이에 따른 대책을 체크리스트 분석과 CPTED 기법으로 지역환경 개선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4. 아동안전과 유해환경 접촉

일반적으로 청소년 유해환경이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사회적, 심리적, 문화적, 물리적, 구조적인 모든 요소로 상호작용하는 사물, 외부의 압력이나 상황, 조건, 행위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하는 비교육적인 환경을 의미한다고 본다.²⁾ 구체적으로는 청소년의 성적인 감정을 자극하거나 폭력성을 조장하고 비행을 촉진하는 등 건전한 인성발달에 해가 될 우려 있는 환경의 총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해환경의 정의는 유해의 의미가 무엇이며, 또한 청소년 보호법상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는가라는 선결문제를 안고 있다.

유해라는 용어는 불법, 불건전 또는 불온 등의 용어와 혼용하여 사용된다. 그러나 불법은 법에 반하는 어떠한 행위, 즉 금지된 행위로서 궁극적으로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다. 그러나 유해, 특히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것은 법률에 의하여 그 행위자체가 모든 국민에게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아직 인성적으로 발달단계에 있는 청소년에게 유통시키거나 행하는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 경우 ‘유해’한 어떠한 것은 제작, 생성이 원칙적으로 가능하거나 행위가 가능하여 성인을 대상으로 유통, 제공, 행위할 수 있지만 청소년에게만 금지되는 것들이다.³⁾ 이러한 의미에서 금지대상이면서 규제대상은 불법적인 것이고, 유해란 관리대상이 불과하다고 보기도 한다.⁴⁾

2) 도미향, “청소년 유해업소의 실태와 복지대책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제4권 제2호, 한국청소년복지학회, 2002, 159면.

3) 이호룡, “사이버공간에서의 유해정보와 청소년 보호 - 규제와 자율에 관한 담론 -”, 인터넷법률 통권 제12호, 법무부, 2002/5, 64면.

4) 김영환, “청소년 유해 매체물 관리, 규제를 위한 법적장치연구”, 형사정책연구 제8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7/봄, 42면; 황성기, “청소년보호를 위한 표현물규제시스템의 헌법적 고찰”, 공법연구 제29권 제3호, 한국공법학회, 2001/5, 289면 이하.

이처럼 불법과 관련하여 유해 개념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유해한 것과 매체에 따라 유해해지는 것으로 구분하기도 한다.⁵⁾ 예컨대 성인용품점은 그 자체가 유해한 것이지만 심야음식점, 오락장 등은 그 자체가 유해하다기 보다는 이러한 장소가 비행으로의 접근을 조장·촉진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유해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다. 또한 유해환경이 행위 재제의 측면에서 정의되는가 또는 청소년의 보호와 육성의 측면에서 정의되는가에 따라서도 그 개념과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청소년에 대한 환경의 유해성 개념을 어떻게 규정하는가는 향후에 이들에 대한 부적 영향을 억제하고 정책적 과제를 추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해 유해성의 범주와 기준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의 통제대상과 규제대상이 결정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대부분 환경의 영향력을 유해성의 판단준거로 활용하면서도 주로 규제정책의 관점에서만 바라보았다. 따라서 아무리 환경의 부적 영향력이 강하게 대두되더라도 실제로 환경의 외적 요소와 유해성의 판단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준거들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보니 주로 규제적 차원에서의 시각이 환경의 유해성을 결정 짓게 되는 핵심요소로 자리 잡았다고 여겨진다.

여기에는 그간의 청소년을 바라보는 국가 정책적 차원의 편향된 시각도 한 몫을 하였다고 여겨진다. 즉, 청소년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목표의 구현이나 국민의 보편적 인식 속에서 문제행동이라 함은 청소년들이 해서는 안 되는 보호적 개념으로 자리 잡으면서 유해환경도 대부분 이러한 문제행동을 보일 수밖에 없는 청소년들의 지위에 근거하여 규제와 제한을 하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경향이 일반적이었다.

초기의 청소년정책이 문제와 보호적 개념에서 출발하면서 이러한 인식이 그대로 청소년에 대한 비판적 시각으로 담겨져 오면서 기성세대의 관념세계에 각인되었으며, 그 결과 비행 문제 요인 중심으로 보려는 성향이 지배적이게 되었다.

5) 이광호 편역, “청소년 유해환경과 규제의 정당성”, 한국청소년연구 제9호, 1992/여름, 193면.

통상적으로 청소년 유해환경의 개념에는 기성세대가 바라보는 청소년에 대한 보호적 시각이 반영되고 있으며, 동시에 환경의 유해성이 청소년들의 부정적 가치관 형성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반영한 개념이라고 여겨진다.

유해성의 기준과 관련해서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이 성장함에 있어서 겪을 수 있는 물리적 위해요소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는 유해행위로 인한 피해까지도 유해성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더욱이 유해성에 대한 기준으로 보는 시각도 미국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사회적 기준에 비추어 보아 청소년들의 성적 흥분을 자극하거나, 청소년에게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준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거나, 전체적으로 보아서 청소년에 대한 진정한 문학적·예술적·정치적·교육적·과학적 가치를 결하고 있는 것을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본다(이명숙, 1997:93).

이처럼 법적 개념의 확대해석이 부분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해성의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적시하기 보다는 오히려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심의기능이나 위원회의 시각이 유해성 판단의 중요한 준거들이 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청소년 유해업소”라 함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1에 해당하는 업소(이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1에 해당하는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그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에 불구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청소년보호법 제2조 5항).

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 (1)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2)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디오물 감상실

- 업 및 동법에 의한 노래연습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 (4) 사행 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별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
 - (5)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 상호간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 (6) 청소년 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

나. 청소년 고용 금지업소

- (1)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2)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3)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디오물 대여업과 동법에 의한 비디오물 소극장업, 게임 제공업 또는 복합유통·제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 (4) 삭제 <2004·1·29>
- (5)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제조업·판매업 및 취급업
- (6)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대여하는 만화대여업
- (7) 청소년 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

한편, 기능적 접근은 업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유해성에 근거하여 유해업소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문조·김선업(1992)은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청소년 관련 유해업소는

다방, 카페, 룸살롱, 술집, 당구장, 여관, 카바레, 사창가 등 그 성격이 객관적으로 유해하다고 인정되고 법적으로 청소년들의 출입이 제한되고 있는 업소 및 자체적으로는 유해업소로 되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곳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유해성을 지니고 있는 업소를 모두 포괄한다.

이러한 기능적 접근에서는 청소년 유해업소의 유형 또한 업소 측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김준호·박정선(1995)은 유해업소를 크게 오락성 업소와 성인용 업소로 나누고, 각각을 5개의 하위범주로 구분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오락성 업소로 분류된 업소는 오락실(성인 오락실, 전자오락실), 만화·비디오가게(만화가게, 만화방, 비디오가게, 비디오방), 롤러스케이트, 당구장, 노래방 등의 다섯 유형의 업소이다. 이에 비해 성인용 업소에 포함되는 업소들은 술집(스탠드바, 룸살롱, 생맥주집, 호프집, 단란주점, 소주방 등), 포장마차, 디스코장(디스코 나이트클럽, 락카페, 카바레, 성인디스코), 숙박업소(여관, 여인숙, 호텔), 매춘업소(사창가, 퇴폐이발소) 등의 다섯 유형이다.

청소년 유해업소의 의미 및 유형에 대한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볼 때 청소년 유해업소는 포괄적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를 의미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볼 때는 다소 복잡한 의미를 가진다. 다방, 카페, 룸살롱, 술집, 당구장, 여관, 카바레, 사창가 등 그 성격이 객관적으로 유해하다고 인정되고 법적으로 청소년의 출입·고용이 금지되고 출입은 허용되나 고용이 금지되는 업소를 청소년 유해업소라고 지칭하며, 법적으로 또는 자체적으로는 유해업소로 되어있지 않다하더라도 그 업소에서 제공되는 내용이나 서비스 등과 같은 요인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를 모두 청소년 유해업소라 지칭할 수 있다.

지금까지 많지는 않지만 제한된 몇몇 연구들이 청소년 유해업소의 유해성을 분류하기 위한 체계를 수립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김문조·김선업, 1992; 김준호·박정선, 1995; 김영한 외, 2005; 유진이 외, 2005; 최인섭·강석구·김혜경, 2005). 김문조·김선업의 연구(1992)에서는 다방, 카페, 룸살롱, 술집, 당구장, 여관, 카바레, 사창가 등 그 성격이 객관적으로 유해하

다고 인정되고 법적으로 청소년들의 출입이 제한되고 있는 업소 및 자체적으로는 유해업소로 되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곳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유해성을 지니고 있는 업소 모두를 포괄하여 청소년 관련 유해업소로 정의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유해업소라는 말 대신에 청소년 관련 유해업소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으며 청소년 관련 유해업소를 분류하기 위한 기준으로 업소의 성격과 법, 업소 서비스를 제시하고 있다. 업소의 성격과 법에 의하면 업소의 성격이 객관적으로 유해하다고 인정되고 법적으로 청소년 출입이 제한되고 있는 업소를 청소년 관련 유해업소로 분류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체적으로는 유해업소가 아니나 그곳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유해성을 지니고 있는 업소를 청소년 관련 유해업소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청소년 유해업소를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유해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의 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김준호·박정선(1995)의 연구에서는 유해업소를 분류하기 위한 체계로 오락성과 성인용을 이용하고 있다. 오락성 체계에 의하여 오락실(예: 성인오락실, 전자오락실), 만화·비디오가게(예: 만화가게, 만화방, 비디오가게, 비디오방), 롤러스케이트, 당구장, 노래방을 유해업소로 분류하고 있고, 성인용 체계에 의하여 술집(예: 스탠드바, 룸살롱, 생맥주집, 호프집, 단란주점, 소주방 등), 포장마차, 디스코장(예: 디스코 나이트클럽, 락카페, 카바레, 성인디스코), 숙박업소(예: 여관, 여인숙, 호텔), 매춘업소(예: 사창가, 퇴폐이발소)를 유해업소로 분류하고 있다.

김영한의 연구(2008)는 청소년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업소를 중심으로 유해요인을 도출하였는데 크게 유해물질, 유해매체, 폐쇄적 공간(밀실) 이용, 심야영업이용이라는 유해요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구체적인 각 유해요인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술/담배와 같은 유해물질로서 음주나 흡연과 관계된 술집이나 슈퍼/마트 등과 같이 유해물질의 구입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업소들은 술과 담배를 판매하고 있는 업소들이다.

둘째, 각종 음란물/폭력물 등과 같은 유해매체로서 청소년들이 유해매체와 접촉하는 비디오방/비디오대여점 등은 업소 내에서 각종 음란물/폭력물을 보유하고 있는 업소들이다.

셋째, 문제친구와의 만남으로서 청소년들은 폭행/금품갈취 등의 문제행동을 혼자서 행하기는 어렵고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문제행동은 문제친구들과 함께 행하게 되는데 오락실, 노래방, 당구장 등은 이러한 문제친구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업소이다.

넷째, 폐쇄적인 공간(밀실) 이용으로서 청소년들이 이성간의 성적 접촉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규범이나 어른들의 간섭으로부터 독립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폐쇄적인 공간을 필요로 하는데 노래방, 비디오방 등은 이러한 공간을 청소년들에게 제공하는 업소이다.

다섯째, 심야영업으로서 청소년들이 업소에서 늦은 밤(오후 10시 이후) 청소년들을 오랜 시간 머무르게 하는 것은 무단외박/가출 등의 문제행동을 유발하게 되는데 실제로 PC방, 술집, 찜질방, 비디오방 등은 늦은 시간까지 심야영업을 통해 청소년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업소이다.

VI. 조사결과의 분석

1. 분석 개요
2. 용도지역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안전
실태 분석
3. 활동공간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안전
실태 분석
4. 용도지역 및 활동공간이 아동청소년에
미치는 영향
5. 가정환경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안전실태
분석

IV. 조사결과의 분석

1. 분석개요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대상 청소년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나타냈다. 전체 780명의 청소년이 응답한 가운데 먼저 성별로는 남학생이 48.7%, 여학생이 51.3%의 비율을 보였다. 대상청소년의 거주지역은 도시 내 상업지역이 27.6%, 도시 내 주거지역이 26.2%, 공업지역이 22.9%, 농어촌지역이 23.3%였다. 부모와 관련해서는 아버지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94.9%, 어머니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72.9%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경제수준과 관련하여 자신의 가정이 잘사는 편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전체의 9.4%, 보통수준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88.3%였고, 못사는 편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1.0%였다. 청소년의 안전사고경험은 있다가 55.1%, 없다가 44.9%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 조사대상자의 특성

단위: 명, %

		전체	비율
전체		780	100.0
성별	남자	380	48.7
	여자	400	51.3
지역특성	도시 내 상업지역	215	27.6
	도시 내 주거지역	204	26.2
	공업지역	179	22.9
	농어촌지역	182	23.3
부 직업	무	29	3.7
	유	740	94.9
	무응답	11	1.4
모 직업	무	197	25.3
	유	569	72.9
	무응답	14	1.8
가정경제수준	상	73	9.4
	중	689	88.3
	하	8	1.0
	무응답	10	1.3
사고경험	무	350	44.9
	유	430	55.1

2) 사고유형별 경험을 및 사고장소

청소년의 사고유형별 경험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추락/넘어짐/미끄러져 다친 사고’를 경험한 경우가 49.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날카로운 물체에 베이거나 찢린 사고’라고 답한 경우가 33.2%, ‘충돌이나 충격을 받아 다친 사고’가 25.1%, ‘물체에 눌리거나 끼인 사고’가 15.6%, ‘교통사고’가 11.8%, ‘기타 다른 사고’가 11.3%, ‘이물질 흡입이나 섭취한 사고’가 9.7%, ‘화재사고’가 8.1%, ‘폭발사고’가 7.6%, ‘부패 변질된 물체를 접촉한 사고’가 6.7%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고장소별로 살펴보면, ‘추락/넘어짐/미끄러져 다친 사고’는 학교주변에서 발생한 경우가 70.1%로 다른 장소에 비해 매우 높은 비율을 보였다. ‘날카로운 물체에 베이거나 찢린 사고’는 집주변(48.6%)과 학교주변(36.3%), ‘충돌이나 충격을 받아 다친 사고’역시 집주변(34.2%)과 학교주변(33.2%)이 높은 빈도를 나타내는 장소로 조사되었다. ‘물체에 눌리거나 끼인 사고’의 경우는 집주변(35.2%)과 여가놀이시설(27.0%)이 높은 빈도율을 보였다.

<표 IV-2> 사고유형별 경험율 및 사고 장소

단위: %

사고유형	전체 (명)	학교 주변	집주 변	통학 로	여가 놀이 시설	학원 주변	기타	사고 율	사고 유형별 비중
추락/넘어짐/미끄러져 다친 사고	384	70.1	32.8	7.6	19.5	7.3	16.4	49.2	27.6
충돌이나 충격을 받아 다친 사고	196	33.2	34.2	9.2	19.4	8.2	12.8	25.1	14.1
화재사고 경험	63	14.3	28.6	1.6	39.7	3.2	17.5	8.1	4.5
날카로운 물체에 베이거나 찢린 사고	259	36.3	48.6	5.0	10.8	7.7	16.6	33.2	18.6
이물질 흡입이나 섭취한 사고	76	13.2	27.6	7.9	38.2	3.9	18.4	9.7	5.5
교통사고	92	12.0	25.0	10.9	27.2	3.3	26.1	11.8	6.6
물체에 눌리거나 끼인 사고	122	25.4	35.2	4.1	27.0	5.7	12.3	15.6	8.8
폭발사고	59	23.7	10.2	1.7	45.8	1.7	18.6	7.6	4.2
부패 변질된 물체를 접촉한 사고	52	11.5	11.5	13.5	51.9	3.8	13.5	6.7	3.7
기타 다른 사고	88	14.8	25.0	4.5	31.8	9.1	34.1	11.3	6.3

3) 사고 발생 시간대

사고를 경험한 청소년들의 사고발생 시간대는 ‘오후 1시 - 7시’가 71.0%로 가장 높았고, ‘오전 12시 이전’이 21.5%, ‘밤 8시 이후’가 10.3%로 나타났다. 사고 발생 시간대별 사고유형을 살펴보면 ‘오전 12시 이전’시간대는 폭발사고(40.7%), 부패 변질된 물체를 접촉한 사고(29.6%), 물체에 눌리거나 끼인 사고(26.8%), 날카로운 물체에 베이거나 찢린 사고(23.3%)의 응답이 높았다. ‘오후 1시 - 7시’시간대는 충돌이나 충격을 받아 다친 사고 경험(78.7%), 추락/넘어짐/미끄러져 다친 사고 경험(76.6%), 물체에 눌리거나 끼인 사고 경험(70.1%)의 응답이 70%이상의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었다. ‘밤 8시 이후’ 시간대는 기타 다른 사고(26.3%), 교통사고(20.0%), 화재사고(15.6%)의 순으로 사고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V-3> 사고발생 시간대

단위: %

항목	오전 12시 이전	오후 1시 - 7시	밤 8시 이후
전체	21.5	71.0	10.3
추락/넘어짐/미끄러져 다친 사고	19.9	76.6	7.3
충돌이나 충격을 받아 다친 사고	18.7	78.7	4.5
화재사고 경험	21.9	62.5	15.6
날카로운 물체에 베이거나 찢린 사고 경험	23.3	68.3	12.4
이물질 흡입이나 섭취한 사고 경험	19.6	69.6	15.2
교통사고 경험	15.0	65.0	20.0
물체에 눌리거나 끼인 사고 경험	26.8	70.1	7.2
폭발사고 경험	40.7	55.6	3.7
부패 변질 된 물체를 접촉한 사고	29.6	63.0	7.4
기타 다른 사고 경험	17.5	56.1	26.3

4) 사고로 다친 부위

사고로 다친 부위를 알아보기에 앞서 사고로 다친 경험을 살펴보면, 다친 경험이 있다고 답한 경우는 34.0%, 다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66.0%로 조사되었다. 사고로 다친 부위는 ‘팔 또는 다리부분’이라는 응답이 79.5%로 가장 많았고, ‘얼굴부분’(39.4%), ‘허리 또는 엉덩이(골반) 부분’(29.0%), ‘머리부분’(27.9%), ‘기타’(24.3%), ‘어깨 또는 가슴부분’(18.2%) 순이었고, ‘내장기관 부분’은 5.7%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V-4> 사고부위

단위: %

	다친 경험이 있다	다친 경험이 없다
전체	34.0	66.0
머리 부분	27.9	72.1
얼굴 부분	39.4	60.6
어깨 또는 가슴 부분	18.2	81.8
허리 또는 엉덩이(골반) 부분	29.0	71.0
팔 또는 다리 부분	79.5	20.5
내장기관 부분	5.7	94.3
기타	24.3	75.7

5) 통학 이동수단 및 이동시간

통학에 주로 이동하는 수단은 걷기(68.1%)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버스(14.8%), 자가용(10.9%), 자전거(6.2%)의 순이었다.

<표 IV-5> 이동수단

단위: %

	사례수(명)	걸기	자전거	버스	자가용
전체	772	68.1	6.2	14.8	10.9

통학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10분 이내의 응답이 57.8%로 절반이상을 나타냈으며 이는 가장 높은 빈도였다. 다음으로 30분 이내(35.6%), 1시간 이내(5.3%), 1시간 이상(1.3%)의 순이었다.

<표 IV-6> 이동시간

단위: %

	사례수(명)	10분 이내	30분 이내	1시간 이내	1시간 이상
전체	773	57.8	35.6	5.3	1.3

6) 통학환경 안전도

청소년들이 집에서 학교까지 등교하는 통학로 환경에 대한 안전도를 알아보았다. ‘모두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항목은 ‘등교 시 교통지도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다’가 48.3%, ‘학교 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표시되어 있다’가 46.9%, ‘차도와 인도는 분리되어 있다’가 42.1%로 조사되었으나 응답율은 절반이 채 되지 않는 수준이었다.

반면,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항목은 ‘학교 시 교통지도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다’가 56.7%, ‘통학로에는 방치된 물건이 쌓여져 있다’가 55.4%, ‘통학 또는 학원 승하차 장소는 별도로 지정되어 있다’가 52.2%로 이는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비율이어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표 IV-7> 통학 환경에 대한 안전도

단위: %

항목	없다	일부 있다	모두 있다
전체	29.6	42.5	27.9
차도와 인도는 분리되어 있다	11.2	46.6	42.1
통학로의 횡단보도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있다	36.7	35.9	27.4
통학로에는 안전펜스가 있다	24.3	45.6	30.1
교통안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	16.0	52.5	31.5
학교 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표시되어 있다	10.3	42.8	46.9
통학 또는 학원승하차 장소는 별도로 지정되어 있다	52.2	30.3	17.6
통학로에는 방치된 물건이 쌓여져 있다	55.4	40.0	4.6
통학로에는 차들이 주차지정표시장소가 아닌 곳에 세워져 있거나 멈춰있다	16.6	69.6	13.8
등교 시 교통지도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다	17.1	34.6	48.3
하교 시 교통지도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다	56.7	26.8	16.5

7) 여가 및 놀이시설 안전도

청소년들의 주변에 있는 여가 및 놀이 시설에 대한 안전도를 알아보았다. 여가 및 놀이시설의 안전도 수준에 대해 57.3%는 긍정적인 응답을 나타냈다. 자세히 살펴보면, 긍정적 응답이 높았던 항목은 시설주변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밤에도 밝다는 항목이 79.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뜨거운 햇볕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77.5%), 시설은 항상 개방되어 있다(69.6%), 시설과 차도는 분리되어 있어 안전거리가 확보되고 있다(67.1%)

등의 순이었다. 반면, 부정적 응답이 높았던 항목은 주변 곳곳에 쓰레기가 없이 잘 정돈되어 있다(71.8%), 시설물은 녹이 슬거나 벗겨지지 않았다(59.1%), 수도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청결하다(56.4%), 시설주변에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이 있다(51.8%) 등의 순서로 나타내어 주변시설에 마련되어야 할 사항들을 보여주고 있다.

<표 IV-8> 주변 여가 및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도

단위: %

항목	그렇다	아니다
전체	57.3	42.7
여가 및 놀이시설은 집에서 매우 가깝게 있다	62.4	37.6
시설과 차도는 분리되어 있어 안전거리가 확보되어 있다	67.1	32.9
주변에 쓰레기통이 설치되어 있다	56.1	43.9
주변 곳곳에 쓰레기가 없이 잘 정돈되어 있다	28.2	71.8
시설은 항상 개방되어 있다	69.6	30.4
뜨거운 햇볕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77.5	22.5
시설 주변에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이 있다	48.2	51.8
시설 주변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밤에도 밝다	79.0	21.0
시설 주변에는 울타리가 설치되어 보호되고 있다	54.7	45.3
시설과 시설은 서로 안전하게(2.5m이상) 떨어져 있다	62.8	37.2
시설물은 녹이 슬거나 벗겨지지 않았다	43.6	56.4
수도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청결하다	40.9	59.1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고 사용가능 하다	54.9	45.1

8) 유해시설 및 유익시설 노출도

청소년 주변에 있는 시설 중 어제(평일)하루 동안 접촉한 경험정도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유해업소의 경우, 3등급 시설인 노래방/커피숍/24시간 편의점은 자주 본다(32.3%), 매우 자주 본다(23.4%)는 노출도가 55.7%로 가장 높았고, PC방/비디오/만화책 대여점/당구장이 자주 본다(25.2%), 매우 자주 본다(19.0%)는 44.2% 노출 정도를 나타내어 다음으로 높았다. 2등급 시설인 호프집/소주방/기타술집은 (자주 본다 18.6%, 매우 자주 본다 10.5%) 29.1%였으며, 다방/비디오방/커피숍/성인오락실/성인 전용 PC방은 27.0%(자주 본다 17.9%, 매우 자주 본다 9.1%)로 나타났다. 1등급 시설인 증기탕/안마시설/모텔/여관/나이트클럽/룸살롱/단란주점/전화방/24시간휴게텔/성인숙소는 14.4%(자주 본다 9.3%, 매우 자주 본다 5.1%)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3등급, 2등급, 1등급 시설 순으로 노출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익시설은 학원이 매우 자주 본다는 응답이 61.1%로 현저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도서관이나 독서실, 공원의 노출도가 그 뒤를 이었다. 공연장/극장은 ‘전혀 보지 못함’의 응답이 60.0%로 매우 높았다.

<표 IV-9> 유해 및 유익시설 노출여부

단위: %

구분		전혀 보지 못함	가끔 본다	자주 본다	매우 자주 본다
시설	전체	35.3	31.8	17.1	15.8
유해 시설	중기탕/안마시설/모텔 여관/나이트클럽/룸살롱/단란주점/ 전화방/24시간휴게텔/성인숙	54.1	31.6	9.3	5.1
	호프집/소주방/기타술집	32.4	38.6	18.6	10.5
	다방/비디오방/커피숍/성인오락실/ 성인전용 PC방	41.3	31.7	17.9	9.1
	노래방/커피숍/24시간편의점	17.2	27.2	32.3	23.4
	PC방/비디오, 만화책 대여점/당구장	23.5	32.3	25.2	19.0
유익 시설	학원	9.2	9.2	20.4	61.1
	도서관이나 독서실	27.2	41.4	17.4	13.9
	공원	34.7	36.6	14.1	14.5
	서점	36.7	37.1	16.5	9.7
	공연장/극장	60.0	28.2	8.3	3.5
	경찰서/소방서 등 관공서	44.6	32.2	14.1	9.1
	복지시설/체육시설	45.7	35.9	10.4	8.1

9) 학교주변

학교주변에 대한 안전도를 질문하였다. 학교주변의 발생 상황을 평가한 비율이 높았던 항목은 학교주변에서 불량식품을 판매하고 있다가 80.4%으로 단연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 다음으로 학교주변이 지저분하다(41.5%), 학교주변에서 학생들이 돈이나 물건을 빼앗기는 경우가 있다(17.2%), 학교

주변에서 폭행을 당한 친구가 있다(15.4%), 밤 10시 이후 PC방에서 게임하는 친구가 있다(13.5%) 등의 순으로 발생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경험이 ‘전혀 없다’는 응답이 높았던 항목은 학교주변가게에서 술·담배를 사는 친구가 있다(89.0%), 학교주변에는 야한 사진이나 광고지를 많이 볼 수 있다(84.9%), 책(만화)방에서 미성년자 관람불가 표시가 된 책(만화)을 보는 친구가 있다(83.6%) 등으로 나타났다.

<표 IV-10> 학교주변에 대한 안전도

항목	단위: %			
	매우 많다	가끔 있다	거의 없다	전혀 없다
전체	9.0	11.9	17.1	62.0
학교주변에서 학생들이 돈이나 물건을 빼앗기는 경우가 있다	1.2	16.0	24.0	58.9
학교주변 가게에서 술·담배를 사는 친구가 있다	0.3	1.8	8.9	89.0
15세 이상 표시가 되어 있는 영상물(비디오,DVD)을 보는 친구가 있다	3.0	6.6	15.5	74.9
책(만화)방에서 미성년자 관람불가 표시가 된 책(만화)을 보는 친구가 있다	0.4	2.9	13.1	83.6
학교주변에서 폭행을 당한 친구가 있다	1.9	13.5	25.2	59.4
밤 10시 이후 PC방에서 게임하는 친구가 있다	1.8	11.7	16.6	69.9
학교 주변에는 야한 사진이나 광고지를 많이 볼 수 있다	0.9	4.0	10.2	84.9
학교 주변이 지저분하다	10.2	31.3	30.8	27.7
학교 주변에서 불량식품을 판매하고 있다	61.5	18.9	9.8	9.8

10) 시간대별 활동장소

청소년의 시간대별 활동장소는 14시 이전에는 ‘학교’(58.6%)가 가장 많았고, ‘학교주변’(15.2%), ‘집’(11.7%) 순으로 조사되었다. 14:00 - 14:59시간대에는 ‘학교’(42.6%)와 ‘집’(19.2%)이 높았고, 이 시간대는 학교에서 주로 집으로 이동하는 학생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15:00 - 15:59시간대에는 ‘집’(29.1%)과 ‘학원’(25.3%), 16:00 - 16:59시간대에는 ‘학원’(42.6%)과 ‘집’(29.8%), 17:00 - 17:59 시간대에는 ‘학원’(43.6%)과 ‘집’(35.2%), 18:00 - 18:59 시간대에는 ‘집’(47.1%)과 ‘학원’(35.3%), 19:00 - 19:59 시간대에는 ‘집’(62.5%)과 ‘학원’(21.1%)이 주 활동 장소로 나타나 주 활동장소가 크게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시 이후 시간대에는 ‘집’은 77.1%, ‘학원’은 10.8%로 나타났다.

<표 IV-11> 시간대별 활동장소

단위: %

시간대	사례수 (명)	집주변	학교 주변	여가 및 놀이터	학원	학교	집	기타 이동 등
14시 이전	759	3.8	15.2	1.3	2.2	58.6	11.7	7.1
14:00 - 14:59	760	5.0	15.7	3.7	5.5	42.6	19.2	8.3
15:00 - 15:59	762	6.8	10.5	5.2	25.3	13.1	29.1	9.8
16:00 - 16:59	761	5.4	4.1	3.3	42.6	5.0	29.8	9.9
17:00 - 17:59	761	6.7	1.6	2.9	43.6	2.4	35.2	7.6
18:00 - 18:59	763	6.3	0.8	1.6	35.3	1.2	47.1	7.9
19:00 - 19:59	763	7.1	0.5	1.0	21.1	1.3	62.5	6.4
20시 이후	759	6.2	0.3	0.8	10.8	0.5	77.1	4.3

2. 용도지역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안전실태 분석

1) 용도지역과 활동공간 분석

(1) 지역에 따른 사고경험

전체 780명의 응답자 중 430명(55.1%)의 청소년이 사고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중 지역에 따른 사고경험을 살펴보면, 도시 내 상업지역이 16.7%로 가장 많았고, 도시 내 거주지역과 공업지역이 동일한 13.2%의 비율을 보였으며, 농어촌 지역이 12.1%로 가장 낮았다.

<표 IV-12> 지역에 따른 사고경험

단위: 명, %

사고경험	사례수(명)	도시 내 상업	도시 내 주거	공업	농어촌
없음	350(44.9)	85(10.9)	101(12.9)	76(9.7)	88(11.3)
있음	430(55.1)	130(16.7)	103(13.2)	103(13.2)	94(12.1)
전체	780(100.0)	215(27.6)	204(26.2)	179(22.9)	182(23.3)

(2) 지역에 따른 사고유형

지역에 따른 사고경험을 보면 전체 사고의 39.0%가 도시 내 상업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지역별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도시 내 주거지역이 21.8%, 공업지역이 19.6%, 농어촌 지역이 19.7%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른 사고유형의 차이를 살펴보면 폭발사고(67.8%), 화재사고(55.6%), 이물질 흡입이나 섭취한 사고(52.6%), 부패 변질된 물체를 접촉한 사고(51.9%)의 경우 도시 내 상업지역에서 절반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내 주거지역은 충돌이나 충격을 받아 다친 사고(25.5%), 날카

로운 물체에 베이거나 찢린 사고(24.7%), 추락/넘어짐/미끄러져 다친 사고(24.0%)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공업지역은 날카로운 물체에 베이거나 찢린 사고(22.4%), 추락/넘어짐/미끄러져 다친 사고(22.1%), 충돌이나 충격을 받아 다친 사고(21.9%)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농어촌 지역은 추락/넘어짐/미끄러져 다친 사고(22.4%), 날카로운 물체에 베이거나 찢린 사고(22.0%)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V-13> 지역에 따른 사고유형

단위: %

사고유형	사례수 (명)	도시상업	도시주거	공업	농어촌
추락/넘어짐/미끄러져 다친 사고	384	31.5	24.0	22.1	22.4
충돌이나 충격을 받아 다친 사고	196	33.7	25.5	21.9	18.9
화재사고 경험	63	55.6	15.9	11.1	17.5
날카로운 물체에 베이거나 찢린 사고	259	30.9	24.7	22.4	22.0
이물질 흡입이나 섭취한 사고	76	52.6	17.1	17.1	13.2
교통사고	92	46.7	20.7	15.2	17.4
물체에 눌리거나 끼인 사고	122	41.8	20.5	18.0	19.7
폭발사고	59	67.8	8.5	10.2	13.6
부패 변질된 물체를 접촉한 사고	52	51.9	15.4	15.4	17.3
기타 다른 사고	88	44.3	19.3	18.2	18.2
전체	1391	39.0	21.8	19.6	19.7

(3) 지역에 따른 통학이동수단 및 이동시간

지역에 따른 청소년의 통학 이동수단을 알아본 결과 전체적으로 ‘걸기’라는 응답이 높은 가운데, 도시 내 상업지역은 ‘걸기’(58.4%) 다음으로 ‘버스’(24.3%), 도시 내 주거지역은 걸기가 매우 높은 응답율(84.1%)을 보였으며 나머지 이동수단은 5%대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공업지역은 ‘걸기’(78.2%) 다음으로 ‘자가용’(10.1%), 농어촌 지역은 걸기의 응답율이 타지역에 비해 51.7%로 가장 낮았으며 ‘버스’(21.3%)와 ‘자가용’(19.7%)의 순서로 나타나면서, 자가용의 응답율이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4> 지역에 따른 통학이동수단

단위: %

		사례수 (명)	걸기	자전거	버스	자가용
지역 특성	도시 내 상업지역	214	58.4	7.9	24.3	9.3
	도시 내 주거지역	201	84.1	5.5	5.0	5.5
	공업지역	179	78.2	3.9	7.8	10.1
	농어촌지역	178	51.7	7.3	21.3	19.7

지역에 따른 청소년의 통학 이동시간을 알아본 결과 각각의 지역별로 ‘10분 이내’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빈도율을 보였다. 도시 내 상업지역의 경우 46.0%로 ‘10분 이내’라는 응답이 타 지역에 비해 낮은 반면, ‘1시간 이내’라는 응답은 12.7%로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이동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5> 지역에 따른 통학이동시간

단위: %

		사례수 (명)	10분 이내	30분 이내	1시간 이내	1시간 이상
지역 특성	도시 내 상업지역	213	46.0	38.5	12.7	2.8
	도시 내 주거지역	203	60.1	37.9	1.0	1.0
	공업지역	179	63.1	32.4	3.4	1.1
	농어촌지역	178	64.0	32.6	3.4	0.0

(4) 지역에 따른 통학환경에 대한 안전도

본 문항은 통학환경에 대한 안전도의 점수를 합산한 결과를 범주화하여 상중하로 재분류하였다. 이는 점검사항에 대한 점수가 높을수록 통학환경에 대한 평가가 양호한 것으로서 통학환경에서 안전시설이 마련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청소년들이 집에서 학교까지 등교하는 통학환경에 대한 안전도에 대해 지역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역특성에 관계없이 ‘일부 있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분포를 가진 가운데, 상대적으로 도시 내 상업지역(19.7%)과 공업지역(17.2%)에서 통학환경의 점검사항을 높은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도시 내 주거지역(31.1%)과 농어촌 지역(37.4%)의 경우 하위그룹 상대적으로 많아 통학환경의 안전시설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통학환경에 대한 평가에서 지역별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표 IV-16> 지역에 따른 통학환경에 대한 안전도

단위: 명, %

		사례수	상	중	하	χ^2
지역 특성	도시 내 상업지역	203(100.0)	40(19.7)	125(61.6)	38(18.7)	50.142***
	도시 내 주거지역	193(100.0)	20(10.4)	113(58.5)	60(31.1)	
	공업지역	163(100.0)	28(17.2)	121(74.2)	14(8.6)	
	농어촌지역	163(100.0)	18(11.0)	84(51.5)	61(37.4)	

***p<.001

(5) 지역에 따른 여가 및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도

본 문항은 여가 및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도의 점수를 합산한 결과를 범주화하여 상중하로 재분류하였다. 이는 점수가 높은 상위그룹일수록 여가 및 놀이시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해석되며 여가 및 놀이시설의 안전시설이 마련되어 있다고 응답한 결과이다.

통학환경 안전도와 마찬가지로 여가 및 놀이시설 안전도의 응답결과도 지역특성에 관계없이 중위그룹의 응답이 가장 많은 분포를 가졌다. 지역에 따른 여가 및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도를 긍정적 평가한 상위그룹을 살펴보면, 도시 내 상업지역(29.1%)과 주거지역(24.0%)이 높았고, 농어촌 지역(15.7%)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안전도 평가수준이 낮았던 하위그룹은 농어촌 지역에서 22.7%로 응답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가 및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도 평가 상위그룹은 가장 낮고, 하위그룹은 가장 높은 결과를 보였다. 그리고 이는 유의미한 차이였다.

<표 IV-17> 지역별 여가 및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도

단위: 명, %

		사례수	상	중	하	χ^2
지역 특성	도시 내 상업지역	206(100.0)	60(29.1)	125(60.7)	21(10.2)	34.053***
	도시 내 주거지역	200(100.0)	48(24.0)	124(62.0)	28(14.0)	
	공업지역	168(100.0)	35(20.8)	125(74.4)	8(4.8)	
	농어촌지역	172(100.0)	27(15.7)	106(61.6)	39(22.7)	

***p<.001

(6) 지역에 따른 학교주변에 대한 안전도

본 문항은 학교주변에 대한 안전도 점수를 합산하여 범주화하여 상중하로 재분류하였다. 점수가 낮은 상위그룹일수록 학교주변에 대한 안전도가 낮은 수준이며, 학교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의 발생수준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응답자들의 지역에 따른 학교주변에 대한 안전도를 살펴보면, 점수가 높았던 하위그룹의 경우 도시 내 상업지역이 71.6%, 도시 내 주거지역이 69.0%, 공업지역이 85.3%, 농어촌지역이 84.9%로 각각 발생상황의 분포가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매우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는 다시 말해 학교주변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응답율로서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학교주변에서 일어날 상황들을 ‘전혀 없다’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많다’고 생각하는 상위그룹의 청소년들은 도시 내 상업지역의 경우 2.9%, 도시 내 주거지역이 0.5%, 농어촌지역이 0.6%였으며 공업지역은 응답율을 보이지 않는 지역별 편차가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응답한 청소년들이 학교주변 환경의 안전수준을 둔감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표 IV-18> 지역에 따른 학교주변에 대한 안전도

단위: 명, %

		사례수	상	중	하	χ^2
지역 특성	도시 내 상업지역	208(100.0)	6(2.9)	53(25.5)	149(71.6)	31.745***
	도시 내 주거지역	200(100.0)	1(0.5)	61(30.5)	138(69.0)	
	공업지역	177(100.0)	—	26(14.7)	151(85.3)	
	농어촌지역	179(100.0)	1(0.6)	26(14.5)	152(84.9)	

***p<.001

(7) 지역에 따른 시간대별 활동장소

지역에 따른 청소년의 시간대별 활동장소를 제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각각의 지역별 시간대별 활동장소는 14시 이전에는 학교, 학교주변, 집의 순이었다. 14:00 - 19:59 시간대에는 지역별로 순서의 차이만 있었을 뿐 집과 학원이 주 활동장소를 이루었으며, 20시 이후 시간대 역시 모든 지역에서 집, 학원 순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지역별로 시간대에 따른 활동장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시 내 상업지역은 14시 이전에는 학교(44.2%)가 가장 많았고, 학교주변(21.6%), 집(13.0%)의 순이었다. 14:00 - 14:59 시간대에는 학교(32.2%), 집(19.7%)과 학교주변(18.8%)이 높았고, 15:00 - 15:59 시간대에는 집(29.3%)과 학원(15.4%)이 높았으며 주로 집으로 이동하였다. 16:00 - 16:59 시간대와 17:00 - 17:59 시간대에는 각각 학원(31.4%)과 집(31.4%), 학원(37.5%)과 집(36.1%)이 높았다. 18:00이후부터 20시 이전까지는 집과 학원이 주 활동장소로 나타났으며 주로 집으로 이동한 시간으로 보여진다. 20시 이후 시간대에는 집(76.7%)이 주 활동장소이고 학원은 8.7%로 나타났다.

<표 IV-19> 지역에 따른 시간대별 활동장소(도시 내 상업지역)

단위: %

구분	시간대	사례수 (명)	집주변	학교 주변	여가및 놀이터	학원	학교	집	기타 이동등
도시 내 상업 지역	14시 이전	208	5.8	21.6	1.4	3.4	44.2	13.0	10.6
	14:00 - 14:59	208	7.2	18.8	3.8	6.3	32.2	19.7	12.0
	15:00 - 15:59	208	10.1	14.4	3.8	15.4	12.0	29.3	14.9
	16:00 - 16:59	207	8.2	6.3	2.9	31.4	5.3	31.4	14.5
	17:00 - 17:59	208	8.2	4.3	1.4	37.5	2.4	36.1	10.1
	18:00 - 18:59	207	6.8	2.4	2.4	30.4	2.4	44.0	11.6
	19:00 - 19:59	208	7.7	1.0	0.5	18.8	2.4	60.6	9.1
	20시 이후	206	6.8	0.5	0.0	8.7	0.0	76.7	7.3

도시 내 주거지역의 시간대별 활동장소는 14시 이전에는 학교(50.5%)가 가장 많았고, 집(21.0%), 학교주변(8.0%)의 순으로 나타났다. 14:00 - 14:59 시간대에는 집(34.8%), 학교(25.4%)와 학교주변(10.0%)이 높았으며, 15:00 - 15:59 시간대에는 집(36.3%)과 학원(27.9%)이 높았고, 주로 학원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된다. 16:00부터 19:59의 시간대에는 각각 응답율에는 차이를 보였지만 집과 학원의 순으로 나타나, 청소년들 대부분이 학원과 집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19:00 - 19:59 시간대에는 집(58.2%)과 학원(27.9%)이 주 활동장소로 주로 집으로 이동하였다. 20시 이후 시간대에는 집(69.0%)이 주 활동장소이고, 학원은 19.5%로 나타났다.

<표 IV-20> 지역에 따른 시간대별 활동장소(도시 내 주거지역)

단위: %

구분	시간대	사례수 (명)	집주변	학교 주변	여가및 놀이터	학원	학교	집	기타 이동등
도시 내 주거 지역	14시 이전	200	6.0	8.0	2.5	1.5	50.5	21.0	10.5
	14:00 - 14:59	201	7.0	10.0	6.0	6.0	25.4	34.8	10.9
	15:00 - 15:59	201	7.5	5.5	6.5	27.9	6.5	36.3	10.0
	16:00 - 16:59	201	5.5	2.5	3.0	36.8	2.5	38.8	10.9
	17:00 - 17:59	200	4.5	1.0	5.5	37.5	1.5	40.0	10.0
	18:00 - 18:59	202	7.9	0.0	0.5	39.1	1.0	45.5	5.9
	19:00 - 19:59	201	8.0	1.0	1.0	27.9	1.0	58.2	3.0
	20시 이후	200	8.5	0.0	0.5	19.5	0.0	69.0	2.5

공업지역의 시간대별 활동장소는 14시 이전에는 학교가 82.4%로 가장 많았고, 학교주변(11.9%), 집(2.8%)의 순이었다. 14:00 - 14:59 시간대에는 학교(60.2%), 학교주변(17.6%), 집(10.2%)이 높았으며, 15:00 - 15:59 시간대에는 집(37.3%), 학원(34.5%)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6:00 - 16:59 시간대에는 학원(58.0%)과 집(27.3%), 17:00 - 17:59 시간대에는 학원(59.3%)과 집(29.9%), 18:00 - 18:59 시간대에는 학원(44.4%)과 집(43.8%)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00 - 19:59 시간대에는 집(65.2%)과 학원(25.3%)이 주 활동장소로 주로 집으로 이동하여 활동한 것으로 보여진다. 20시 이후 시간대에는 집(80.3%)이 주 활동장소이고, 학원은 11.8%로 나타났다.

<표 IV-21> 지역에 따른 시간대별 활동장소(공업지역)

단위: %

구분	시간대	사례수 (명)	집주변	학교 주변	여가및 놀이터	학원	학교	집	기타 이동등
공업 지역	14시 이전	176	1.1	11.9	0.6	1.1	82.4	2.8	0.0
	14:00 - 14:59	176	4.0	17.6	1.7	4.0	60.2	10.2	2.3
	15:00 - 15:59	177	4.0	6.2	4.5	34.5	9.6	37.3	4.0
	16:00 - 16:59	176	4.0	1.7	2.3	58.0	2.3	27.3	4.5
	17:00 - 17:59	177	6.2	0.0	1.1	59.3	0.6	29.9	2.8
	18:00 - 18:59	178	5.1	0.0	0.6	44.4	0.6	43.8	5.6
	19:00 - 19:59	178	4.5	0.0	1.1	25.3	0.0	65.2	3.9
	20시 이후	178	3.4	0.6	1.1	11.8	0.0	80.3	2.8

농어촌 지역의 시간대별 활동장소를 살펴보면, 14시 이전에는 학교(61.1%)가 가장 많았고, 학교주변(18.9%)과 집(8.6%)이 그 다음의 순이었다. 14:00 - 14:59 시간대에는 학교(57.1%), 학교주변(16.6%), 집(9.7%)이 높았으며, 15:00 - 15:59 시간대에는 학교(25.6%)와 학원(25.0%)이 높았고, 학교주변도 15.9%였다. 16:00 - 16:59 시간대에는 학원(46.9%)과 집(20.3%)의 순서였으며 학교도 10.2%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 17:00 - 17:59 시간대에는 학원(42.0%)과 집(34.1%)의 순이었으며, 18:00시부터 19:59시까지의 집과 학원이 주 활동장소였다. 20시 이후 시간대에는 집(83.4%)이 주 활동장소이고, 학원은 2.3%로 타 지역에 비해 이시간대에 학원의 비율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2> 지역에 따른 시간대별 활동장소(농어촌지역)

단위: %

구분	시간대	사례수 (명)	집주변	학교 주변	여가및 놀이터	학원	학교	집	기타 이동등
농어촌 지역	14시 이전	175	1.7	18.9	0.6	2.9	61.1	8.6	6.3
	14:00 - 14:59	175	1.1	16.6	2.9	5.7	57.1	9.7	6.9
	15:00 - 15:59	176	5.1	15.9	6.3	25.0	25.6	12.5	9.7
	16:00 - 16:59	177	3.4	5.6	5.1	46.9	10.2	20.3	8.5
	17:00 - 17:59	176	8.0	0.6	3.4	42.0	5.1	34.1	6.8
	18:00 - 18:59	176	5.1	0.6	2.8	27.3	0.6	55.7	8.0
	19:00 - 19:59	176	8.0	0.0	1.7	11.9	1.7	67.0	9.7
	20시 이후	175	5.7	0.0	1.7	2.3	2.3	83.4	4.6

2) 용도지역과 유해환경

(1) 지역에 따른 유해시설 노출도

각 항목별 문항에 대해 ‘전혀 보지 못함’을 0점, ‘매우 자주 본다’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점수화하여 합산한 후 분포를 고려하여 상증하로 재분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역에 따른 유해시설접촉실태를 살펴보면, 도시 내 상업지역(39.3%)과 주거지역(39.7%)에서 노출도가 높았던 상위그룹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공업지역은 상위그룹 응답자가 가장 낮은 것(23.2%)으로 보여졌다. 반면, 노출도가 낮았던 하위그룹의 경우 공업지역(35.6%)과 농어촌 지역(31.2%)의 응답비율이 도시 내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에 따른 유해시설의 노출도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표 IV-23> 지역에 따른 유해시설(100점 기준)

단위: %

		사례수(명)	상	중	하	χ^2
지역 특성	도시 내 상업지역	211	39.3	34.1	26.5	251.476*
	도시 내 주거지역	199	39.7	36.2	24.1	
	공업지역	177	23.2	41.2	35.6	
	농어촌지역	173	36.4	32.4	31.2	

*p<.05

(2) 지역에 따른 유익시설 노출도

각 항목별 문항에 대해 ‘전혀 보지 못함’을 0점, ‘매우 자주 본다’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점수화하여 합산한 후 분포를 고려하여 상중하로 재분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역에 따른 유익시설접촉실태를 살펴보면, 농어촌지역(43.8%)과 도시 내 상업지역(38.8%)의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노출도가 높았고, 공업지역은 낮다고 응답하였다. 도시 내 주거지역은 중간 수준정도로 파악되며 반면, 노출도가 낮았던 하위그룹은 공업지역(39.9%), 농어촌지역(33.5%)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도시 내 상업지역과 도시 내 주거지역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해시설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공업지역은 유익시설의 노출도 상위그룹(24.2%)이 가장 낮았으며, 하위그룹(39.9%)은 가장 높은 응답율을 나타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유의미한 결과였다.

<표 IV-24> 지역에 따른 유익시설(100점 기준)

단위: %

		사례수 (명)	상	중	하	χ^2
지역 특성	도시 내 상업지역	209	38.8	34.9	26.3	594.337***
	도시 내 주거지역	203	33.5	38.9	27.6	
	공업지역	178	24.2	36.0	39.9	
	농어촌지역	176	43.8	22.7	33.5	

***p<.001

(3) 지역에 따른 등급별 유해시설 노출도

각 항목별 문항에 대해 ‘전혀 보지 못함’을 0점, ‘매우 자주 본다’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점수화하여 합산한 후 분포를 고려하여 상중하로 재분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역에 따라 등급별 유해시설의 노출 정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1등급 유해시설은 도시 내 상업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위그룹 응답자(25.3%)가 많았고, 도시 내 주거지역의 경우 상위그룹 응답자(7.9%)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등급 유해시설의 경우 도시 내 상업지역의 노출도가 가장 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노출도가 낮았던 하위그룹의 경우 도시 내 주거지역 응답자(65.2%)가 가장 많았으며, 공업지역(60.4%)과 농어촌지역(54.9%)의 하위그룹 응답자들도 높은 비율이었다.

<표 IV-25> 지역에 따른 1등급 유해시설 노출도(100점 기준)

단위: %

등급	구분	사례수 (명)	노출수준			χ^2
			상	중	하	
1등급 유해시설	도시 내 상업지역	190	25.3	37.4	37.4	43.242***
	도시 내 주거지역	178	7.9	27.0	65.2	
	공업지역	169	11.8	27.8	60.4	
	농어촌지역	153	11.1	34.0	54.9	

***p<.001

2등급 유해시설의 노출 정도는 공업지역의 상위그룹 응답자(40.7%)가 많았고, 농촌지역(25.7%)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출도가 낮았던 하위그룹의 경우 농어촌 주거지역 응답자(47.9%)가 가장 많았다.

<표 IV-26> 지역에 따른 2등급 유해시설 노출도(100점 기준)

단위: %

등급	구분	사례수 (명)	노출수준			χ^2
			상	중	하	
2등급 유해시설	도시 내 상업지역	204	38.2	20.6	41.2	52.318***
	도시 내 주거지역	198	39.9	22.2	37.9	
	공업지역	177	40.7	26.0	33.3	
	농어촌지역	167	25.7	26.3	47.9	

***p<.001

3등급 유해시설의 경우 도시 내 주거지역의 상위그룹(29.8%)이 가장 많았고, 공업지역(15.6%)이 가장 낮았으며, 노출도가 낮았던 하위그룹의 경우 공업지역(56.3%) 청소년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업지역에서 상위그룹이 가장 낮고, 하위그룹이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여 노출 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역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IV-27> 지역에 따른 3등급 유해시설 노출도(100점 기준)

단위: %

등급	구분	사례수 (명)	노출수준			χ^2
			상	중	하	
3등급 유해시설	도시 내 상업지역	193	20.7	37.3	42.0	66.520***
	도시 내 주거지역	181	29.8	37.0	33.1	
	공업지역	167	15.6	28.1	56.3	
	농어촌지역	159	20.8	37.1	42.1	

***p<.001

3. 활동공간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안전실태 분석

1) 활동공간에 따른 사고경험

(1) 통학환경 안전도와 사고경험

다음은 통학환경 안전도의 각 항목별 문항에 대해 ‘없다’를 0점, ‘모두 있다’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점수화하여 합산한 후 분포를 고려하여 상중하로 재분류한 결과로서 점검사항에 대한 점수가 높을수록(상위그룹) 통학환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을 의미한다(이하 100점 기준으로 제시된 표에서 동일 적용됨).

사고경험여부는 통학환경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지만, 통학환경을 중간으로 평가하는 청소년들 가운데 사고경험이 59.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통학환경 안전수준을 낮게 평가한 그룹은 사고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1.8%로 낮았으며, 높게 평가한 그룹은 사고경험이 있다고 응

답한 비율이 54.4%이었다.

<표 IV-28> 통학환경 안전도(100점 기준)와 사고경험

단위: %

		사례수(명)	없음	있음	χ^2
통학환경 안전도	상	237	45.6	54.4	3.031
	중	262	40.8	59.2	
	하	280	48.2	51.8	

(2) 여가 및 놀이시설 안전도와 사고경험

다음은 여가 및 놀이시설 안전도 문항의 각 항목별 응답에 대해 ‘그렇다’를 0점, ‘아니다’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점수화하여 합산한 후 분포를 고려하여 상중하로 재분류한 결과로서 점수가 높을수록(상위그룹) 여가 및 놀이시설 점검사항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본다(이하 100점 기준으로 제시된 표에서 동일 적용됨).

여가 및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도를 중간수준으로 평가한 청소년들에게서 사고경험이 5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이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V-29> 여가 및 놀이시설 안전도(100점 기준)와 사고경험

단위: %

		사례수(명)	없음	있음	χ^2
여가 및 놀이 시설 안전도	상	97	44.3	55.7	1.511
	중	423	43.3	56.7	
	하	258	48.1	51.9	

(3) 학교주변 안전도와 사고경험

다음의 표는 학교주변 안전도의 각 항목별 문항에 대해 ‘매우 많다’를 0점, ‘전혀 없다’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점수화하여 합산한 후 분포를 고려하여 상중하로 재분류한 결과로서 점수가 높을수록(상위그룹) 학교주변 안전도를 좋게 평가하는 것으로 의미된다(이하 100점 기준으로 제시된 표에서 동일 적용됨). 따라서 <표 IV-18>의 표에서 제시한 상중하 범주와는 다르게 해석됨을 제시한다.

학교주변 안전과 관련되어 발생한 경험들이 적다고 평가했던 청소년(상위 그룹)에게서 다른 그룹에 비해 사고경험이 적게 나타나는 것(48.5%)으로 조사되었다. 학교주변 안전도 평가 수준과 사고경험 유무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V-30> 학교주변 안전도(100점 기준)와 사고경험

단위: %

		사례수(명)	없음	있음	χ^2
학교주변 안전도	상	266	51.5	48.5	7.759
	중	255	40.8	59.2	
	하	238	41.2	58.8	

2) 유해시설 및 유익시설과 사고경험

(1) 유해시설과 사고경험

유해시설의 노출정도와 사고경험여부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유해시설의 노출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청소년들에게서 사고경험이 63.5%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31> 유해시설 노출정도(100점 기준)와 사고경험

단위: %

		사례수(명)	없음	있음	χ^2
유해시설 노출도	상	266	36.5	63.5	11.420***
	중	273	49.8	50.2	
	하	221	48.4	51.6	

***p<.001

(2) 유익시설과 사고경험

유익시설의 경우 노출도가 높은 중상위그룹의 사고경험이 각각 56.6%, 55.8%로 하위그룹(53.1%)에 비해 조금 높게 나타났으나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 수준이었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표 IV-32> 유익시설 노출정도(100점 기준)와 사고경험

단위: %

		사례수(명)	없음	있음	χ^2
유익시설 노출도	상	269	44.2	55.8	0.674
	중	256	43.4	56.6	
	하	241	46.9	53.1	

(3) 등급별 유해시설과 사고경험

등급별 유해시설과 사고경험유무에 대한 결과는 1, 2, 3등급 유해시설의 노출도가 높은 상위그룹의 청소년의 경우 각각 65.7%, 65.4%, 67.3%로 사고경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1등급 시설을 제외한 2, 3등급의 유해시설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IV-33> 등급별 유해시설(100점 기준)과 사고경험

단위: %

		사례수(명)	없음	있음	χ^2
유해시설 (1등급)	상	99	34.3	65.7	4.339
	중	218	46.8	53.2	
	하	373	43.7	56.3	
유해시설 (2등급)	상	272	34.6	65.4	18.536***
	중	176	51.1	48.9	
	하	298	50.7	49.3	
유해시설 (3등급)	상	153	32.7	67.3	10.971***
	중	245	47.3	52.7	
	하	302	48.0	52.0	

***p<.001

3) 활동공간에 따른 유해환경

(1) 활동공간에 따른 유해시설 및 유익시설 노출

청소년의 활동공간 영역에 따른 유해환경접촉정도를 χ^2 검증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통학환경에 대한 안전도를 평가한 청소년의 중위그룹에서 유해환경 노출정도는 높은 계층이 많은 것(37.3%)으로 조사되었다. 유익시설의 노출정도를 가장 높게 평가한 그룹에서는 통학환경 안전도를 상으로 평가한 그룹의 응답율이 37.2%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IV-34> 통학환경에 따른 유해시설 및 유익시설 노출실태(100점 기준)

단위: %

활동공간 구분	평가 구분	사례수 (명)	유해시설			χ^2	유익시설			χ^2
			상	중	하		상	중	하	
전체		759	35.0	35.8	29.1	—	35.2	33.5	31.4	—
통학환경 안전도	상	234	32.5	35.9	31.6	1.840	37.2	29.1	33.8	3.910
	중	255	37.3	36.1	26.7		34.1	37.3	28.6	
	하	270	35.2	35.6	29.3		34.4	33.7	31.9	

여가 및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도를 중으로 평가한 그룹에서 유해시설 노출 역시 중간 수준에서 37.4%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여가 및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도를 상위로 평가한 그룹은 유익시설의 노출도가 45.3%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익시설 노출을 가장 낮게 평가한 그룹은 응답율이 가장 낮은 것(23.2%)로 조사되었다. 여가 및 놀이시설에 따른 유익시설 노출정도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표 IV-35> 여가 및 놀이시설에 따른 유해시설 및 유익시설 노출실태(100점 기준)

단위: %

활동공간 구분	평가 구분	사례수 (명)	유해시설			χ^2	유익시설			χ^2
			상	중	하		상	중	하	
전체		759	35.0	35.8	29.1	—	35.2	33.5	31.4	—
여가 및 놀이시설 안전도	상	95	32.6	33.7	33.7	2.873	45.3	31.6	23.2	9.812 **
	중	414	36.0	37.4	26.6		32.9	36.5	30.5	
	하	249	34.1	34.5	31.3		34.8	29.2	36.0	

**p<.01

학교주변에 대한 안전도 평가가 높았던 상위그룹(발생경험이 낮을수록 점수가 높음)의 경우가 유해시설에 대한 노출수준을 ‘상’으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낮았다(23.3%). 반면, 유익시설의 경우 학교주변에 대한 안전도 평가가 낮았던 하위그룹에서 유익시설의 노출수준을 ‘상’으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유익시설의 경우 학교주변 발생상황이 많았던 응답자 즉, 하위그룹의 유익시설 노출도가 40.8%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주변 안전평가 수준이 낮았던 하위그룹에서 유해시설(52.6%)과 유익시설(40.8%)의 노출도가 모두 높게 나타난 것이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IV-36> 학교주변에 따른 유해시설 및 유익시설 노출실태(100점 기준)

단위: %

활동공간 구분	평가 구분	사례수 (명)	유해시설			χ^2	유익시설			χ^2
			상	중	하		상	중	하	
전체		759	35.0	35.8	29.1	—	35.2	33.5	31.4	—
학교주변 안전도	상	258	23.3	39.1	37.6	54.495 ***	33.2	30.5	36.3	11.949 **
	중	251	29.9	37.1	33.1		31.1	33.9	35.1	
	하	230	52.6	30.4	17.0		40.8	35.6	23.6	

***p<.001

(2) 활동공간에 따른 등급별 유해시설 노출도

청소년의 활동공간 영역에 따른 등급별 유해시설노출정도를 살펴보았다. 각각의 표는 다음과 같다.

통학환경에 대한 안전도 평가 상위그룹은 1등급 유해시설의 노출을 낮게 평가한 하위그룹에서 가장 높은 것(53.4%)로 나타났다. 통학환경의 안전도 평가 하위그룹에서 1등급 유해시설의 노출을 낮게 평가한 하위그룹에서 응답율이 55.1%로 가 1등급 유해시설의 응답율 중 가장 높은 것이었다. 2등급 유해시설의 경우 통학환경을 중간수준으로 평가한 그룹에서 노출정도를 높다고 한 상위그룹의 응답율이 43.7%로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고, 통학환경을 낮은 수준으로 평가한 하위그룹에서 3등급 유해시설의 노출정도를 높은 수준으로 평가한 청소년들이 22.5%로 가장 많았고, 통학환경을 낮은 수준으로 평가한 그룹에서 3등급 시설의 노출이 많다는 응답이 45.4%로 가장 높았다. 이는 2등급 시설에서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7> 통학환경에 따른 등급별 유해시설 노출실태(100점 기준)

.단위: %

활동 공간	평가 구분	사례 수 (명)	유해(1등급)			χ^2	유해(2등급)			χ^2	유해(3등급)			χ^2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전체		759	14.4	31.6	54.0	—	36.5	23.6	39.9	—	21.9	34.9	43.2	—
통학 환경 점검	상	234	15.8	30.8	53.4	0.889	34.9	24.3	40.9	9.943 **	20.9	37.3	41.8	1.514
	중	255	14.5	32.1	53.4		43.7	19.4	36.9		22.2	35.7	42.2	
	하	270	12.8	32.1	55.1		31.0	27.1	41.9		22.5	32.1	45.4	

p<.01 *p<.001

여가 및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도 수준을 높게 평가한 상위그룹에서 1등급 유해시설의 노출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1등급 유해시설의 응답을 중 가장 높은 수치였다(61.1%). 2등급 유해시설의 경우 상위평가그룹에서 노출도가 47.9%로 가장 낮았다. 3등급 유해시설의 경우 하위평가그룹에서 노출도가 46.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V-38> 여가 및 놀이시설에 따른 등급별 유해시설 노출실태(100점 기준)

.단위: %

활동 공간	평가 구분	사례 수 (명)	유해(1등급)			χ^2	유해(2등급)			χ^2	유해(3등급)			χ^2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전체		759	14.4	31.6	54.0	—	36.5	23.6	39.9	—	21.9	34.9	43.2	—
여가 및 놀이 시설 점검	상	95	14.4	24.4	61.1	3.302	31.9	20.2	47.9	4.206	17.4	44.2	38.4	4.934
	중	414	14.8	33.5	51.7		38.9	23.7	37.4		22.8	35.2	42.1	
	하	249	13.7	31.1	55.3		34.4	24.5	41.1		21.8	31.6	46.6	

학교주변 안전도 평가가 높았던 상위그룹(학교주변의 발생경험이 적음)의 1등급 유해시설 노출 정도는 가장 낮은 수준(9.6%)이었으며, 학교주변의 안전도 평가가 낮았던 하위그룹의 청소년들은 2등급 유해시설의 노출도가 가장 높았다(49.8%). 3등급 유해시설은 학교주변 안전도 평가가 높았던 상위그룹의 노출도가 11.8%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학교주변 안전도 평가에 따른 등급별 유해시설 접촉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IV-39> 학교주변에 따른 등급별 유해시설 노출실태(100점 기준)

단위: %

활동 공간	평가 구분	사례 수 (명)	유해(1등급)			χ^2	유해(2등급)			χ^2	유해(3등급)			χ^2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전체		759	14.4	31.6	54.0	—	36.5	23.6	39.9	—	21.9	34.9	43.2	—
학교 주변 발생 상황	상	258	9.6	31.0	59.4	28.263 ***	25.6	22.0	52.4	38.555 ***	11.8	35.0	53.3	49.380 ***
	중	251	11.8	25.9	62.3		35.7	25.0	39.3		18.1	36.3	45.6	
	하	230	21.5	38.0	40.5		49.8	22.9	27.3		36.8	33.0	30.2	

4. 용도지역 및 활동공간이 아동·청소년 안전에 미치는 영향

1) 활동공간 영역간의 상관관계 및 영향요인 분석

(1) 통학환경 안전도의 각 하위항목간의 상관관계

통학환경에 대한 안전도는 10개의 하위항목으로 구성되었다. 하위항목별 응답 청소년들의 최소 1.50점에서 최대 2.37점의 평균값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Cronbach's α 는 .650이었다. 응답청소년들은 통학환경에 대한 시설 및 점검 사항을 중간수준에서 '일부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통학환경의 각 하위항목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하위항목들은 서로 간에 유의한 정적(+)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다만, 통학로의 횡단보도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있다와 통학로에는 차들이 주차지정표시 장소가 아닌 곳에 세워져 있거나 멈춰있다 항목 간에 부적(-)관계를 보였으며, 통학로에는 방치된 물건이 쌓여져 있었다와 등교 시 교통지도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항목 간에 부적(-)관계를 나타냈다. 청소년들은 보행자 신호등이 많을수록 차들이 주차지정표시 장소가 아닌 곳에 세워진 경우가 적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졌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아니었다.

<표 IV-40> 통학환경 안전도의 각 하위항목간의 상관관계

N=722

		1	2	3	4	5	6	7	8	9	10
1	차도와 인도 분리	1.000	.308**	.336**	.355**	.326**	.216**	.091*	.093*	.216**	.104**
2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		1.000	.160**	.212**	.181**	.260**	.214**	-.044	.020	.112**
3	안전펜스 설치			1.000	.469**	.357**	.252**	.114**	.157**	.322**	.203**
4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1.000	.557**	.238**	.104**	.151**	.225**	.127**
5	학교 또는 어린이보호구역표시					1.000	.157**	.107**	.135**	.217**	.087*
6	통학 또는 학원승하차장소별도 지정						1.000	.118**	.014	.108**	.172**
7	방치된 물건							1.000	.269**	-.034	.096**
8	주차지정 표시 장소 이외의 주차								1.000	.078*	.110**
9	등교 시 교통지도자 있음									1.000	.319**
10	하교 시 교통지도자 있음										1.000

*p<.05 **p<.01

(2) 여가 및 놀이시설 안전도의 각 하위항목간의 상관관계

여가 및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도의 각 하위항목 간 신뢰도는 .650을 나타냈다. 여가 및 놀이시설 환경의 각 하위항목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일부 항목에서 서로 다른 방향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변인들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는 유의미한 결과가 아니었다. 나머지의 문항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IV-41> 여가 및 놀이시설 안전도의 각 하위항목간의 상관관계

N=746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집에서 근접	1.000	.235**	.175**	.063	.262**	.141**	.027	.111**	.203**	.211**	.106**	-.002	-.042
2	시설과 차도분리, 안전거리확보		1.000	.182**	.192**	.180**	.146**	.111**	.138**	.225**	.234**	.090*	.088*	.085*
3	주변에 쓰레기통 설치			1.000	.189**	.176**	.019	.105**	.135**	.013	.063	.104**	.191**	.137**
4	주변정리 정돈				1.000	.152**	.049	.052	.090*	.114**	.084*	.203**	.213**	.083*
5	시설 항상 개방					1.000	.120**	.011	.041	.103**	.259**	.153**	.113**	-.030
6	뜨거운 햇볕을 피할 공간 있음						1.000	.011	.122**	.137**	.108**	.151**	.091*	.043
7	주변에 어린이보호 구역표지판 설치							1.000	.100**	.169**	.078*	.009	.194**	.230**
8	주변에 가로등 설치로 밤에도 밝음								1.000	.088*	.107**	.091*	.111**	.084*
9	주변에 울타리 설치되어 보호됨									1.000	.232**	.110**	.116**	.051
10	시설간의 안전거리 (2.5M)확보										1.000	.154**	.118**	.066
11	시설물 녹이 슬거나 벗겨지지 않음											1.000	.278**	.095**
12	수도시설설 치 및 청결												1.000	.419**
13	화장실 설치 및 사용가능													1.000

*p<.05 **p<.01

(3) 학교 주변 안전도의 각 하위항목간의 상관관계

학교 주변에 대한 안전도의 항목 전체의 신뢰도는 .736을 나타냈으며, 대부분의 항목에서 3.50대의 평균값을 나타내고 있었는데, 학교주변이 지저분하다는 항목은 2.76점, 학교주변에서 불량식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1.68점으로 청소년들은 학교주변 상황에서 이들을 빈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각 항목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거의 모든 항목간에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2> 학교 주변 안전도의 각 하위항목간의 상관관계

N=764

		1	2	3	4	5	6	7	8	9
1	학교주변에서 학생들이 돈이나 물건을 빼앗기는 경우가 있다	1.000	.361**	.280**	.321**	.441**	.244**	.133**	.216**	.120**
2	학교주변가게에서 술담배를 사는 찬가 있다		1.000	.376**	.480**	.328**	.341**	.320**	.160**	.044
3	15세 이상 표시 영양물을 보는 찬가 있다			1.000	.495**	.327**	.325**	.242**	.211**	.155**
4	책민화방에서 미성년자를 팔거나 표시가 된 책민화를 보는 찬가 있다				1.000	.416**	.357**	.324**	.175**	.115**
5	학교주변에서 폭행을 당한 찬가 있다					1.000	.370**	.217**	.245**	.164**
6	밤10시 이후 PC방에서 게임하는 찬가 있다						1.000	.320**	.219**	.167**
7	학교주변에는 이혼사건이나 광고지를 많이 볼 수 있다							1.000	.192**	.123**
8	학교주변이 지저분하다								1.000	.391**
9	학교주변에서 불량식품을 판매하고 있다									1.000

*p<.05 **p<.01

(4) 각각의 활동공간 영역 안전도 간의 상관관계 및 영향요인

다음은 통학환경, 여가 및 놀이시설환경, 학교 주변 환경 안전도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Pearson 상관계수를 구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각 활동공간 영역 중 통학환경의 여가 및 놀이시설환경과의 상관계수는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유의미한 결과였다. 통학환경의 학교 주변 환경과의 상관계수는 정(+)의 관계로, 여가 및 놀이시설의 학교 주변 환경과의 상관계수는 부(-)의 관계였지만 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IV-43> 활동공간 영역 안전도간의 상관관계

N=780

	통학환경	여가 및 놀이시설환경	학교 주변 환경
통학환경	1.000	-.288**	.060
여가 및 놀이시설환경		1.000	-.037
학교 주변 환경			1.000

**p<.01

5. 가정환경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안전실태 분석

1) 부모님의 직업에 따른 안전실태 분석

(1) 부모님의 직업에 따른 통학환경 안전도

아버지의 직업유무에 따라 통학환경의 안전도를 느끼는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아버지의 직업이 있는 경우 통학환경에 대한 안전도 평가수준은 비슷한 비율을 나타냈으며, 직업이 없는 경우 상으로 평가한 그룹은 13.8%수준의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아버지의 직업이 없는 그룹에서 통학환경 안전도 수준을 낮게 평가하는 응답율은 58.6%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졌다.

<표 IV-44> 아버지 직업유무에 따른 통학환경 안전도 (100점 기준)

단위: %

		사례수 (명)	상	중	하	χ^2
아버지 직업 유무	없음	29	13.8	27.6	58.6	114.112***
	있음	739	31.3	34.1	34.6	
	무응답	11	18.2	18.2	63.6	

***p<.001

어머니의 직업에 따라 통학환경의 안전도를 느끼는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직업이 있는 경우 통학환경의 안전도를 높게 평가하는 상위 그룹은 30.1%로 중, 하위그룹에 비해 낮은 비율을 보였으며, 직업이 없는 경우 역시 통학환경의 안전수준을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IV-45> 어머니 직업유무에 따른 통학환경 안전도 (100점 기준)

단위: %

		사례수 (명)	상	중	하	χ^2
어머니 직업 유무	없음	197	31.5	34.0	34.5	136.344***
	있음	568	30.1	33.6	36.3	
	무응답	14	28.6	28.6	42.9	

***p<.001

(2) 부모님의 직업에 따른 여가 및 놀이시설 안전도

아버지의 직업에 따라 여가 및 놀이시설 안전도를 평가하는 수준을 살펴 보면, 아버지의 직업이 있는 경우 여가 및 놀이시설 안전도에 대해 ‘상’의 수준으로 평가한 비율은 가장 낮은 12.9%를 나타냈으며, 직업이 없는 경우도 여가 및 놀이시설의 안전도를 높게 평가한 그룹은 6.9%로 가장 낮은 수치였다. 이는 다른 중, 하위그룹에 비해 매우 큰 차이를 보였으나, 유의미한 것은 아니었다.

<표 IV-46> 아버지 직업유무에 따른 여가 및 놀이시설 안전도 (100점 기준)

단위: %

		사례수 (명)	상	중	하	χ^2
아버지 직업 유무	없음	29	6.9	51.7	41.4	31.674
	있음	738	12.9	54.6	32.5	
	무응답	11	0.0	45.5	54.5	

어머니의 직업이 있는 경우 여가 및 놀이시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12.5%, 없는 경우 12.8%에 그쳤으며,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관계없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한 그룹에서 이 응답율이 가장 높았다. 어머니의 직업에 따라 여가 및 놀이시설 안전도를 평가하는 수준역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47> 어머니 직업유무에 따른 여가 및 놀이시설 안전도 (100점 기준)

단위: %

		사례수 (명)	상	중	하	χ^2
어머니 직업 유무	없음	196	12.8	50.5	36.7	61.979
	있음	568	12.5	55.6	31.9	
	무응답	14	7.1	57.1	35.7	

(3) 부모님의 직업에 따른 유해 및 유익시설 노출도

① 유해시설

아버지의 직업유무에 따른 유해시설노출정도를 살펴보았다. 직업이 없는 경우 50.0%가 유해시설 노출도가 높은 수준을 나타냈으며, ‘직업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유해시설의 노출수준이 가장 높은 상위그룹의 응답율은 34.8%였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아니었다.

<표 IV-48> 아버지 직업유무에 따른 유해시설 노출 (100점 기준)

단위: %

		사례수 (명)	상	중	하	χ^2
아버지 직업 유무	없음	28	50.0	32.1	17.9	113.292
	있음	722	34.8	36.1	29.1	
	무응답	10	10.0	30.0	60.0	

어머니의 직업에 따른 유해시설 접촉정도를 살펴본 결과, ‘없다’라고 응답한 청소년의 경우 노출 정도는 상(30.1%), 하(30.6%)의 수준이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있다’라고 응답한 청소년의 경우 유해시설 노출수준이 가장 높은 상위그룹에서 37.2%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표 IV-49> 어머니 직업유무에 따른 유해시설 노출 (100점 기준)

단위: %

		사례수 (명)	상	중	하	χ^2
어머니 직업 유무	없음	193	30.1	39.4	30.6	135.207
	있음	554	37.2	35.2	27.6	
	무응답	13	15.4	15.4	69.2	

② 유익시설

아버지의 직업에 따른 유익시설 접촉 정도를 살펴본 결과, 아버지의 직업 유무에 관계없이 모두 유익시설의 접촉 정도가 높은 상위그룹의 응답율이 각각 37.9%, 35.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IV-50> 아버지 직업유무에 따른 유익시설 노출 (100점 기준)

단위: %

		사례수 (명)	상	중	하	χ^2
아버지 직업 유무	없음	29	37.9	34.5	27.6	225.064
	있음	727	35.2	33.1	31.6	
	무응답	10	20.0	50.0	30.0	

어머니의 직업에 따른 유익시설 접촉의 경우 직업이 없는 경우 중간수준의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36.4%), 직업이 있는 경우 유익시설 노출도가 높은 상위그룹의 응답율이 37.8%를 보였다. 그러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IV-51> 어머니 직업유무에 따른 유익시설 노출 (100점 기준)

단위: %

		사례수 (명)	상	중	하	χ^2
어머니 직업 유무	없음	195	27.7	36.4	35.9	295.172
	있음	558	37.8	32.1	30.1	
	무응답	13	30.8	46.2	23.1	

③ 등급별 유해시설

아버지의 직업에 따른 등급별 유해시설 노출 정도는 1등급 유해시설의 경우 아버지의 직업유무에 관계없이 노출 정도는 낮은 것(하위그룹 각각 50.0%, 54.0%)으로 분석되었고, 상위그룹 응답자가 많은 것은 직업이 없는 경우였다.

2등급 유해시설의 경우 직업이 없는 경우 노출 정도를 ‘상’으로 응답한 비율(38.5%)이 가장 높았으며, 직업이 있는 경우 노출정도를 ‘하’의 수준으로

응답한 비율(40.3%)이 가장 높은 것으로 차이를 보였다. 3등급 유해시설의 경우 아버지의 직업이 없는 경우 노출도가 높은 상위그룹의 응답율이 19.2%로 낮은 수치였으며, 직업이 있는 경우 노출도가 낮은 하위그룹에서 42.8의 응답율을 보였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아니었다.

<표 IV-52> 아버지 직업유무에 따른 등급별 유해시설 노출 (100점 기준)

단위: %

		사례수(명)	상	중	하	χ^2
유해시설 (1등급)	직업없음	24	20.8	29.2	50.0	4.679
	직업있음	656	14.0	32.0	54.0	
	무응답	10	20.0	10.0	70.0	
유해시설 (2등급)	직업없음	26	38.5	34.6	26.9	8.838
	직업있음	710	36.6	23.1	40.3	
	무응답	10	20.0	30.0	50.0	
유해시설 (3등급)	직업없음	26	19.2	42.3	38.5	22.229
	직업있음	664	22.3	34.9	42.8	
	무응답	10	0.0	20.0	80.0	

어머니의 직업에 따른 등급별 유해시설 노출 정도는 1등급 유해시설의 경우 직업이 없는 경우 노출도가 59.8%로 하위그룹에서 가장 많은 응답율을 보였으며, 직업이 있는 경우도 하위그룹 응답율이 51.1%를 보였다. 어머니의 직업이 있는 경우(51.1%)보다는 없는 경우(59.8%)의 비율이 더 높은 것이었다. 이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2등급 유해시설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관계없이 각각 모두 노출도가 가장 낮은 ‘하’의 응답율이 높았으며,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3등급 유해시설 역시 직업의 유무와 관계없이 노출 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어머니의 직업이 없는 경우(46.7%)가 있는 경우(41.2%)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3> 어머니 직업유무에 따른 등급별 유해시설 노출 (100점 기준)

단위: %

		사례수(명)	상	중	하	χ^2
유해시설 (1등급)	직업없음	174	8.6	31.6	59.8	16.258*
	직업있음	503	16.7	32.2	51.1	
	무응답	13	0.0	7.7	92.3	
유해시설 (2등급)	직업없음	187	35.3	26.2	38.5	26.597**
	직업있음	546	37.2	23.1	39.7	
	무응답	13	23.1	7.7	69.2	
유해시설 (3등급)	직업없음	182	19.8	33.5	46.7	17.424
	직업있음	505	23.0	35.8	41.2	
	무응답	13	7.7	23.1	69.2	

*p<.05 **p<.01

(4) 부모님의 직업에 따른 학교주변 안전도

아버지의 직업유무에 따라 학교주변에 대한 안전도 평가 수준을 알아본 결과, 아버지의 직업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에서 점수가 높았던 상위그룹의 비율이 51.9%로 높게 나타났다. 직업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대부분 비슷한 수준의 응답율을 보였으나, 상위그룹이 가장 높았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아버지의 직업유무에 상관없이 학교주변의 안전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상위그룹에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직업 없음 51.9%, 있음 34.4%).

<표 IV-54> 아버지 직업유무에 따른 학교주변 안전도 (100점 기준)

단위: %

		사례수(명)	상	중	하	χ^2
아버지 직업 유무	없음	27	51.9	18.5	29.6	148.468a
	있음	721	34.4	33.8	31.8	
	무응답	11	36.4	54.5	9.1	

어머니의 직업에 따라 학교주변 발생상황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없다’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중간그룹(36.5%), ‘있다’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상위그룹(36.0%)에서 가장 많은 응답율을 보여 이는 학교주변에서 안전관련 경험들이 직업이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경우 발생 경험이 적은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IV-55> 어머니 직업유무에 따른 학교주변 안전도 (100점 기준)

단위: %

		사례수(명)	상	중	하	χ^2
어머니 직업 유무	없음	189	30.7	36.5	32.8	148.822a
	있음	556	36.0	32.6	31.5	
	무응답	14	57.1	35.7	7.1	

2) 가정수준에 따른 안전실태 분석

(1) 가정수준에 따른 통학환경 안전도

청소년들의 가정수준에 따라 통학환경의 안전도를 평가하는 수준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자신의 가정수준을 높다고 인식한 청소년의 경우 통학환경에 대한 평가를 높게 하고 있었으며(50.7%), 낮다고 인식한 경우 높은 평가를 한 청소년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V-56> 가정수준에 따른 통학환경 안전도 (100점 기준)

단위: %

		사례수(명)	상	중	하	χ^2
가정수준	상	73	50.7	24.7	24.7	125.505
	중	688	28.8	34.6	36.6	
	하	8	0.0	50.0	50.0	
	무응답	10	20.0	20.0	60.0	

(2) 가정수준에 따른 여가 및 놀이시설 안전도

자신의 가정수준에 따라 여가 및 놀이시설 안전도에 대해 평가한 차이를 살펴본 결과, 가정수준의 상위그룹과 중간그룹은 여가 및 놀이시설의 안전을 중간수준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각각 52.1%, 55.0%)으로 나타난 반면, 가정수준을 하위그룹으로 인식한 청소년들은 여가 및 놀이시설 안전도 낮은 수준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62.5%).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IV-57> 가정수준에 따른 여가 및 놀이시설 안전도 (100점 기준)

단위: %

		사례수(명)	상	중	하	χ^2
가정수준	상	73	23.3	52.1	24.7	81.132
	중	687	11.4	55.0	33.6	
	하	8	12.5	25.0	62.5	
	무응답	10	10.0	50.0	40.0	

(3) 가정수준에 따른 유해 및 유익시설 노출도

① 유해시설

가정수준에 따른 유해시설접촉정도를 알아본 결과, 가정수준의 상위그룹(43.1%)과 하위그룹(50.0%)에서 유해시설 노출정도가 가장 높았으며, 중위그룹의 경우 중간수준(36.8%)을 나타낸 응답율이 가장 높았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IV-58> 가정수준에 따른 유해시설 노출 (100점 기준)

단위: %

		사례수(명)	상	중	하	χ^2
가정수준	상	72	43.1	30.6	26.4	221.535
	중	672	33.9	36.8	29.3	
	하	8	50.0	12.5	37.5	
	무응답	8	37.5	37.5	25.0	

② 유익시설

가정수준에 따라 유익시설접촉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가정수준을 높다고 인식한 청소년의 경우 유익시설의 접촉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40.3%). 중간수준역시 접촉수준은 ‘상’의 응답율은 34.8%로 가장 높았다. 반면, 가정형편을 낮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청소년의 경우 유익시설 노출정도가 높은 상위그룹의 응답율이 가장 낮은 12.5%를 보였다.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IV-59> 가정수준에 따른 유익시설 노출 (100점 기준)

단위: %

		사례수(명)	상	중	하	χ^2
가정수준	상	72	40.3	38.9	20.8	481.529
	중	679	34.8	32.7	32.5	
	하	8	12.5	62.5	25.0	
	무응답	7	42.9	14.3	42.9	

③ 등급별 유해시설

가정수준에 따른 등급별 유해시설 노출정도를 살펴본 결과, 먼저 1등급 유해시설의 경우 가정수준을 인식하는 정도와 관계없이 하위그룹의 응답율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 노출 정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각각 51.6%, 54.5%, 50.0%). 2등급 유해시설의 경우는 가정수준을 높게 인식하는 경우(41.7%)와 낮게 인식하는 경우(42.9%) 노출도가 높았으며, 3등급 유해시설의 경우 가정수준을 높게 인식하는 상위그룹과 낮게 인식하는 하위그룹의 청소년이 중간그룹의 응답율(각각 37.5%, 57.1%)을 높게 보여 중간수준의 노출정도를 보였으며 중위그룹은 가장 노출도가 낮은 하위그룹에서 44.3%로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표 IV-60> 가정수준에 따른 등급별 유해시설 노출 (100점 기준)

단위: %

가정수준 \ 등급별시설노출도			사례수(명)	상	중	하	χ^2
1등급 유해 시설	가정 수준	상	64	10.9	37.5	51.6	5.928
		중	613	14.5	31.0	54.5	
		하	6	33.3	16.7	50.0	
		무응답	7	14.3	42.9	42.9	
2등급 유해 시설	가정 수준	상	72	41.7	23.6	34.7	19.544
		중	660	35.9	23.6	40.5	
		하	7	42.9	14.3	42.9	
		무응답	7	28.6	28.6	42.9	
3등급 유해 시설	가정 수준	상	64	28.1	37.5	34.4	32.716
		중	621	21.4	34.3	44.3	
		하	7	14.3	57.1	28.6	
		무응답	8	12.5	50.0	37.5	

(4) 가정수준에 따른 학교주변 안전도

가정수준에 따른 학교주변에 대해 안전도를 평가하는 차이를 살펴본 결과, 자신의 가정형편을 좋게 인식하고 있는 상위그룹의 청소년들에게서 학교주변 안전도를 낮은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는 응답율이 37.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정형편을 낮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하위그룹에서는 학교주변 안전도를 중하의 수준으로 평가하는 응답이 각각 37.5%로 높게 나

타났다. 반면 가정형편이 ‘중’ 이라고 응답한 그룹에서는 학교주변 안전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IV-61> 가정수준에 따른 학교주변 안전도 (100점 기준)

단위: %

		사례수(명)	상	중	하	χ^2
가정수준	상	70	32.9	30.0	37.1	289.634a
	중	671	35.2	33.8	31.0	
	하	8	25.0	37.5	37.5	
	무응답	10	50.0	40.0	10.0	

6. 성별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안전실태 분석

1) 성별에 따른 안전실태 분석

(1) 성별에 따른 통학환경 안전도

성별에 따른 통학환경의 안전도를 느끼는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상위그룹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많아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통학환경에 대한 안전도를 높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표 IV-62> 성별에 따른 통학환경 안전도 (100점 기준)

단위: %

		사례수(명)	상	중	하	χ^2
성별	남자	379	33.5	31.1	35.4	48.137*
	여자	400	27.5	36.0	36.5	

*p<.05

(2) 성별에 따른 여가 및 놀이시설 안전도

성별에 따라 여가 및 놀이시설 안전도를 평가하는 수준을 살펴보면, 상위그룹의 남학생이 15.3%, 여학생이 9.8%였으며, 하위그룹은 남학생 30.2%, 여학생이 36.0%였다. 남학생의 경우가 여가 및 놀이시설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었으며, 여학생의 경우가 남학생보다 낮은 수준으로 평가하는 응답율이 높았다. 따라서 여학생의 여가 및 놀이시설 안전도 평가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IV-63> 성별에 따른 여가 및 놀이시설 안전도 (100점 기준)

단위: %

		사례수(명)	상	중	하	χ^2
성별	남자	378	15.3	54.5	30.2	25.730
	여자	400	9.8	54.2	36.0	

(3) 성별에 따른 유해 및 유익시설 노출도

① 유해시설

성별에 따른 유해시설 노출도를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상위그룹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여학생의 경우 하위그룹 응답자가 많은 비율의 차이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남학생이 유해시설의 노출도가 높았다고 응답하였고, 여학생이 유해시설의 노출도가 낮은 수준으로 응답한 그룹에서 남학생과 많은 차이로 높게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IV-64> 성별에 따른 유해시설 노출도 (100점 기준)

단위: %

		사례수(명)	상	중	하	χ^2
성별	남자	367	38.7	37.1	24.2	79.990
	여자	393	31.6	34.9	33.5	

② 유익시설

성별에 따른 유익시설 노출 정도를 살펴본 결과, 유해시설과 같은 결과를 보였으며,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남학생이 유익시설의 노출정도를 높은 수준으로 평가한 상위그룹의 응답자가 40.5%로 여학생(30.1%)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노출정도를 낮은 수준으로 평가한 하위그룹에서는 여학생이(33.3%) 남학생(29.5%)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IV-65> 성별에 따른 유익시설 노출도 (100점 기준)

단위: %

		사례수(명)	상	중	하	χ^2
성별	남자	370	40.5	30.0	29.5	144.211
	여자	396	30.1	36.6	33.3	

③ 등급별 유해시설

먼저 성별에 따른 1등급 유해시설의 노출도는 각 그룹별로 남, 여의 응답율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이었다. 노출도를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한 상위그룹의 응답율은 남학생(15.9%)이 여학생(12.9%)보다 조금 높았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2등급 유해시설의 노출도는 상위그룹의 경우 남학생(38.8%)이 여학생(34.3%)보다 높게, 중위그룹은 남학생(22.4%)보다 여학생(24.7%)이 조금 높게, 하위그룹은 남학생(28.8%)보다 여학생(41.0%)이 매우 높은 수준의 응답율을 보였다. 이 역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3등급 유해시설의 노출도 역시 2등급의 남녀 차이와 비슷한 양상을 나타냈으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남학생(26.5%)의 경우 유해시설 노출도가 높았던 상위그룹 응답자가 여학생(17.5%)보다 많았던 반면, 하위그룹에서는 여학생 응답자(47.4%)가 남학생(38.6%)보다 많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3등급 유해시설 노출도가 높음이 확인되었다.

등급별 유해시설 모두 상위그룹의 응답율은 남학생이 높았으며, 하위그룹의 응답율은 여학생이 높았다.

<표 IV-66> 성별에 따른 등급별 유해시설 노출도 (100점 기준)

단위: %

		사례수(명)	상	중	하	χ^2
유해시설 (1등급)	남자	334	15.9	31.1	53.0	1.755
	여자	356	12.9	32.0	55.1	
유해시설 (2등급)	남자	361	38.8	22.4	28.8	9.957
	여자	385	34.3	24.7	41.0	
유해시설 (3등급)	남자	339	26.6	34.8	38.6	15.088*
	여자	361	17.4	35.2	47.4	

*p<.05

(4) 성별에 따른 학교주변 안전도

성별에 따른 학교주변 안전도 수준을 살펴보면, 상위그룹의 경우 여학생(36.8%)이 남학생(33.2%)보다 많았으며, 중위그룹 역시 여학생(36.7%)이 남학생(30.3%)보다 많았다. 하위그룹에서는 남학생(36.5%)이 여학생(26.5%)보다 많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교주변의 발생경험이 적은 수준이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차이가 확인되었으나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표 IV-67> 성별에 따른 학교주변 안전도 (100점 기준)

단위: %

		사례수(명)	상	중	하	χ^2
성별	남자	367	33.2	30.3	36.5	125.368
	여자	392	36.8	36.7	26.5	

V.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

V.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의 주요 활동의 중심이 되는 집주변(Home Zone), 통학로, 학교주변(School Zone)의 안전도를 기준으로 지역중심의 구체적인 아동·청소년의 안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취약지역, 취약계층, 취약가정의 안전수준과 및 위험 현상을 그렇지 않는 지역이나 계층 및 가정과 비교하여 조명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에서 잠재적 위험상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지역 중심의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아동·청소년의 주요 활동공간인 지역특성 유형, 아동·청소년의 공간의 안전도와 위해환경과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을 제시하였다.

① 취약지역, 취약계층, 취약가정의 아동·청소년은 사고나 위험한 상황이 더 많고 더 위험하다.

② 지역단위, 계층단위, 가정단위의 아동·청소년의 안전사고나 위험한 상황은 일정부분 공통적인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③ 아동·청소년의 주요 활동 지역은 집주변(Home Zone), 통학로, 학교주변(School Zone)에 머무른다.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의 거주 및 활동 지역의 입지적 특성과 아동·청소년 활동공간의 물리적 위해도, 그리고 안전사고와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활동공간(집주변, 통학로, 학교주변)별 안전체크리스트에 의한 안전도, 사고경험유무, 유익 및 유해환경접촉도를 높이거나 낮추는 원인을 분석하고, 아동·청소년의 활동공간 특성을 조사하여 활동공간별 안전 실태와 정책자료 제시, 지역의 입지적 특성에 따른 사고경험과 활동공간의 안전수준을 분석하였다.

조사방법은 층화할당무선표집법을 사용하여 4개영역별 300명씩 총 1,200명을 조사하였으며, 그중 지역특성영역별 자료의 차이를 균등하게 하여 최종 780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주요 분석 방법으로는 빈도, 백분율, χ^2 (카이스퀘어)검증, Pearson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적인 빈도분석에서는 주요 사고 유형은 ‘추락/넘어짐/미끄러져 다친 사고’가 49.2%로 가장 많으며, 사고 장소는 학교주변, 집주변, 여가놀이시설주변이었다. 이것은 본 연구에서 아동청소년들의 주요 활동공간으로 제시한 곳과 일치한다.

사고발생시간대는 대부분 오후시간대(오후1 - 7시)로 조사되었으며, 교통사고는 오후 시간대 폭발사고는 오전시간대에 많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부위는 팔다리 부분 - 얼굴 부분 - 허리나 엉덩이 순으로 높았다.

통학 시 이동수단은 조사대상이 초등학생이라서인지 68.1%가 도보였으며, 통학시간은 30분 이내가 93.4%이었다. 이것은 통학 이동로에 청소년들이 많이 머물고 있으며, 그 주변에 유해환경이 많을 경우 아동청소년에게 영향력이 많을 것으로 여겨진다.

통학환경의 안전도는 중간정도이나 특히 하교 시 교통지도가 없는 것과 물건방치, 주정차위반이 아주 높게 나타났다.

여가 놀이 시설에서는 약간 안전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쓰레기 문제와 위생시설에 대한 관리가 낮았다.

유해시설에 대한 접촉은 1등급 유해시설은 거의 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등급 유해시설과 3등급 유해시설은 자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2, 3등급 유해시설에 대한 계도와 감시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학교주변의 안전도는 불량식품 판매가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청결도에 있어서도 낮은 수준이었다.

아동·청소년의 시간대별 활동장소는 오전 시간대의 학교를 제외하고 오후 시간대에는 대부분 학원이나 집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용도지역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안전도 차이를 보면 도시 내 상업지역이 사고경험이 가장 많으며, 사고유형은 도시 내 상업지역은 화재, 이물질 섭취, 폭발, 부패·변질, 물체 접촉 등이 많고, 도시 내 주거지역과 공업지역, 농어촌지역은 충돌이나 충격사고, 추락/넘어짐/ 미끄러져 다친 사고나 날카로운 물체에 베이거나 찢린 사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아동·청소년들이 자전거 타기, 인라인 타기 등 활동적 생활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동수단은 공통적으로 걷기가 가장 많으나 도시 내 상업지역과 농촌지역은 버스통학이 20% 이상이였다. 농어촌지역은 자가용도 19.7%였다.

지역별 안전도를 보면 통학환경 안전도는 농어촌지역이 가장 낮은 수준이고 다음으로 주거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집주변 여가 및 놀이시설의 안전도는 도시 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높게, 농어촌지역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학교주변안전도는 대부분의 아동·청소년들이 ‘안전하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가운데, 도시 내 상업지역, 농어촌지역, 도시 내 주거지역 순으로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용도구역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안전도에는 차이가 있으며, 특히 도시 내 상업지역과 농어촌지역의 아동·청소년이 위험한 환경에 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용도지역과 유해환경 접촉도에서는 도시 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노출도가 높으며, 유익시설 접촉은 농어촌지역과 도시상업지역의 노출도가 높았으며, 공업지역은 낮은 응답율을 보였다.

활동 공간별 상관관계에서는 통학환경 안전도는 신뢰도가 .650, 집주변 여가 및 놀이시설 안전도 항목은 신뢰도가 .650, 학교주변 안전도의 신뢰도는 .736으로 대부분 높은 신뢰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부모와 가정환경과 아동·청소년의 안전도와의 검증에서는 소득수준, 가족구성형태 등 대부분 유의하지 않았으나, 어머니의 직업여부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마도 가정의 돌봄 기능이 어머니 유무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궁극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설에서 용도

구역(지역별 특성)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안전도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앞으로 아동청소년 정책추진에서 취약지역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거나, 재정을 투자하고자 할 때 충분히 고려되어야할 항목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소득수준이나 가정환경은 개별적인 문제로 인하여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물리적인 환경개선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어머니가 직장인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는 그들을 돌볼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야 한다.

중요 사고에 대한 대안은 정책제언을 통해서 제시한다.

2. 정책제언

1) 아동·청소년 안전사고의 주원인이 되는 스포츠·레저용품에 대한 안전 기준 강화 필요

조사결과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경험한 사고유형(사고율)은 ‘추락/넘어짐/미끄러져 다친 사고’(49.2%)였으며 다음으로 ‘날카로운 물체에 베이거나 찢린 사고’(33.2%), ‘충돌이나 충격을 받아 다친 사고’(25.1%), ‘물체에 눌리거나 끼인 사고’(15.6%), ‘교통사고’(11.8%) 등의 순이었다. 이는 한국소비자원(2009)의 위해사례 실태에서의 연령별 위해원인 현황의 사고 유형과도 비슷하게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유형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청소년들이 즐겨 이용하는 자전거, 인라인 스케이트 등의 스포츠·레저용품을 들 수 있겠다. 이번 조사에서 이들 사고의 원인 물품을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으나 한국소비자원의 2009년 위해사례 실태의 연령별 위해품목 분석에서 10세~19세의 연령대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고 유형이 ‘추락/넘어짐/미끄러져 다친 사고’였으며, 이들 연령대의 가장 많은 위해 유발 품목이 스포츠·레저용품인 것을 볼 때 적정한 추론으로 생각된다. 스포츠·레저용품 중 안전사고 빈발 원인 품목을 세부품목으로 보면, 자전거, 인라인 스케이트 등이 주를 이루고 있어 이로 인한 ‘추락/넘어짐/미끄러져 다친 사고’, ‘충돌이나 충격을 받아 다친 사고’, ‘물체에 눌리거나 끼인 사고’, ‘교통사고’ 등이 빈발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 빈발하는 청소년 안전사고를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이 많이 이용하면서 위해를 겪고 있는 자전거, 인라인 스케이트 등의 스포츠·레저용품 품질 및 안전기준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현재 자전거, 인라인 스케이트 등의 바퀴달린 놀이기구들의 품질 및 안전기준은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근거한 자율안전확인 안전 기준 부속서 40 “이륜자전거”에서 자전거의 규격,

브레이크, 등화 및 반사체 등에 대한 안전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자전거 품질 및 안전 관련 법규 >

☐ 자전거 부품 안전 기준

○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근거한 자율안전확인 안전 기준 부속서 40 “이륜자전거”에서 자전거의 규격, 브레이크, 등화 및 반사체 등에 대한 안전 기준을 제시함.

※ 기술표준원은 자전거 안전기준 개정을 통해 9월부터 석면 브레이크 패드 사용금지, 자전거 차체 피로시험(페달링 하중시험, 수직하중시험, 수평하중시험)을 도입하는 내용의 안전기준 개정안을 2009.7.10. 입안 예고함.

그러나 현재 국내 자전거 시장의 99.2%가 수입자전거이고 이중 94.8%가 중국에서 수입되며 일반자전거의 평균 수입가격은 대당 미화 80불(약 84,630원)로, 수입되는 대부분의 자전거가 저가의 자전거임으로 해서 적절한 품질 및 안전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의 2006년부터 2009년 8월 31일까지 접수된 소비자 불만 상담 분석 결과에서도 전체 자전거 관련 건 1,218건 중 품질 및 A/S관련 불만이 51.6%(628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차체(프레임)(17.4%), 타이어(13.7%), 브레이크(11.9%), 휠(속업소버, 바퀴)(10.1%)등 자전거 작동과 관련된 주요 부품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어 저가의 수입자전거로 인한 위험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실제 소비자위해도도 직접 이어지고 있어서 한국소비자원의 CISS에 접수된 자전거 위해 사고는 2006년 239건, 2007년 367건, 2008년 573건으로 전년대비 각각 53.6%(128건), 56.1%(206건)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1월부터 8개월간의 위해사례는 331건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46.8%나

증가하여 계속하여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났듯이 청소년들이 생활 속에서 당면하고 있는 물리적 안전사고 유형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추락/넘어짐/미끄러져 다친 사고’의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는 자전거 등의 스포츠·레저용품의 안전 기준, 특히 저가의 수입품에 대한 품질 및 안전 기준 강화와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는 ‘추락/넘어짐/미끄러져 다친 사고’로 인한 신체부위에서 머리카나 얼굴, 팔 또는 다리부분을 가장 많이 다치고 있는 것을 감안,(실제 조사결과 확인필요- 만일 그런 결과가 없다면 한국소비자원의 자전거 안전실태조사(2009)의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자전거 이용시 “보호장구 착용” 여부에 대해 “착용하지 않는다, 거의 착용하지 않는다”가 89.4%(447명)로 나타나 사고시 부상당할 위험이 매우 높았고 한국 소비자원 위해정보 분석결과에서도 자전거 이용시 “머리·얼굴”에 피해를 입은 경우가 37.5%(579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을 이용하십시오) 이러한 스포츠·레저용품 사용시 안전모 등의 인명보호장구 착용을 실효성있게 시행하도록 하는 제도 보완이 요구된다.⁶⁾ 즉, 자전거나 인라인 스케이트 등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안전모 등의 보호장구를 세트에 판매하도록 유도하거나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공원들 놀이시설 장소에 보호장구를 무료로 대여하는 제도가 검토될 수 있겠다.

한편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등하교시 이외에 방과 후 집주변이나 학원까지의 이동, 여가 및 놀이시설에서 자전거, 인라인 스케이트 등의 스포츠·레저 용품을 이용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활동이 대부분 일몰 이후, 운전자 등의 위해제공자의 가시거리가 떨어지는 시간대에 이뤄질 가능성이 많은 만큼 자전거 본체의 일부에만 도입되어 있는 야광표시를(현행법상 자전거 후면 반

6)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13세 미만 어린이에 한하여 “어린이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 외의 도로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거나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타는 때에는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위반시 벌칙조항이 없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사경(리어 리플렉터)과 페달 리플렉터, 사이드 리플렉터는 장착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자전거 전조등과 프런트(전면)반사경 장착은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음)자전거 프레임과 바퀴 등에도 도입하고 인라인 스케이트나 킥보드 등의 놀이기구에도 도입하여 제조단계에서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등의 안전 관련 기준을 강화하는 부분도 검토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스포츠·레저용품(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등)의 야광장구를 제조단계에서부터 의무화하고, 제조 및 수입품의 품질 및 안전기준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스포츠·레저용품(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등) 판매시 안전모와 보호장구를 세트로 판매하도록 하고, 대여시도 보호장구를 의무적으로 대여하 등 보호장구 착용을 법적으로 의무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일시적인 단속이 아니라 지속적인 단속도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지역별 기초강습을 무료 또는 저렴하게 배울 수 있는 인정된 체육 및 청소년 시설, 단체 협회 등을 지정하여 항시 수강할 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도 필요하다.

2) 아동·청소년 안전사고 저감을 위한 통학환경 개선 방안 필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이 안전사고를 경험하는 시간대는 이번 조사 결과, 오후 1시~7시가 71.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오전 12시 이전(21.5%)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리적 사고들이 일어나는 시간대는 등하교 시간과 하교 이후(방과후)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경험한 사고유형(사고율)인 ‘추락/넘어짐/미끄러져 다친 사고’는 학교주변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으며(70.1%), 두 번째로 많은 ‘날카로운 물체에 베이거나 찢린 사고’는 집주변(48.6%)과 학교주변(36.3%), ‘충돌이나 충격을 받아 다친 사고’ 역시 집주변(34.2%)과 학교주변(33.2%), ‘물체에 눌리거나 끼인 사고’는 집주변(35.2%)과 학교주변(25.4%), 여가놀이시설(27.0%)에서 골고루 일어나고 있었으며, ‘교통사고’는 여가놀이시설(27.2%), 집주변(25.0%), 학교주변(12.0%)에서 주로 일어나고 있었다⁷⁾. 즉, 현재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경험

하고 있는 안전사고 유형인 ‘추락/넘어짐/미끄러져 다친 사고’는 학교주변의 시설이나 건물 또는 설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만큼 학교주변의 시설과 통학 환경을 점검하고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아동·청소년들의 통학환경 점검에서는 하교시 교통지도 인력 미비와 통학로 상의 위험 적체물 방치, 통학 또는 학원 승하차 장소 미비 등이 아동·청소년의 통학환경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 지적된 바 있다.

우선 하교시 교통안전을 보면, 대체로 시간이 일정하여 교통지도 인력 등 통학로 안전관리가 집중되는 등교시간과는 달리 학년과 학교에 따른 차이와 방과후 수업, 학원 연계 등의 청소년 개개인의 이유로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학교 하교시간 통학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별도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하교시간은 학년별·학교별로 차이는 있겠으나 동계의 경우, 한국소비자원(2004)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일몰 후와 겹쳐질 가능성도 많아 하교 통학환경 개선에 대한 유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⁸⁾.

7) 한국소비자원의 “2008년도 소비자위해정보 주요통계분석”에 의하면 ‘추락/넘어짐/미끄러져 다친 사고’ 유형의 가장 많은 피해품목은 토지·건물·설비(47.5%)가 가장 많았으며, 스포츠·레저용품(13.9%), 가구(13.3%), 승용물(5.2%)등의 순이었고 ‘날카로운 물체에 베이거나 찢린 사고’는 주방용품(31.7%), 가사용품(11.9%), 문화용품(9.1%), 기타상품(8.5%), 토지·건물·설비(7.2%), 스포츠·레저용품(4.6%)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충돌이나 충격을 받아 다친 사고’는 가구(31.1%), 스포츠·레저용품(18.9%), 토지·건물·설비(15.2%), 차량 및 승용물(8.4%)등의 순이었으며, ‘물체에 눌리거나 끼인 사고’는 토지·건물·설비(41.5%), 차량 및 승용물(21.3%), 의류 및 신변용품(6.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8) 한국소비자원의 조사(2004)에 따르면, 방과 후 학원 등의 사교육활동이 늘어나고 어린이들의 일몰 후 거리 통행 및 활동이 잦아지면서 운전자와 보행자의 가시거리가 짧고 주의가 산만해지는 일몰 후 야간시간대 어린이 안전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경찰청의 “교통사고통계”(2009)에 따르면 2008년도에 발생한 어린이(만14세 이하)교통사고 중, 방과 후부터 일몰후 야간시간인 16시부터 24시까지의 어린이 사망자수는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따라서 현재 등교시간대에 집중되고 있는 교통지도를 하교시간대에도 적절하게 배치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이는 기존 녹색어머니회 등의 조직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지역사회 고령인구 활용 정책과 연계하여 교사 등의 오랜 경험을 겸비한 전문직 은퇴자들의 자원봉사 활동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만하다.

통학로 안전확보를 위해서는 통학로에 방치된 적체물 등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최근 빈번한 도시지역 재건축 또는 재개발로 인해 도시 주거지역의 위해요인이 늘어나고 있다. 각종 공사 등으로 인한 적체물이 별도의 표지판없이 방치되어 있는 것은 지자체별로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통학환경 점검에서 통학 또는 학원 승하차 장소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2007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의한 이 제정되면서 관련 안전기준 등의 제도적 장치는 상대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는 학교와는 달리 학원의 경우, 시설안전과 차량운행 관련하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히 학원이 운행하는 차량과 관련해서는 운행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안전수칙도 지키지 않아 사고가 빈번한 만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법에 차량안전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밖에도 통학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 미설치(36.7%), 통학로 안전펜스 미설치(24.3%)등 통학로 안전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지켜지고 있지 않는 곳이 상당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아동·청소년들의 통학환경 개선 방안으로 스쿨존의 확대가 필요하고,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 통학로 안전펜스, CCTV설치 의무화를 강화하여야 한다. 아울러 통학 또는 학원 버스 운전자에 대한 연간 안전교육을 의무화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고, 아파트인 경우 정문 주변 안전한 곳에 승하차 장소를 따로 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의 절반이 넘는 50.9%이며, 동 시간대 부상자수는 전체의 51.9%로 나타남.

3) 아동·청소년의 거주지역에 따른 차별화된 안전정책 필요

지역별로 아동·청소년이 경험한 사고경험을 보면 전체 사고의 39.0%가 도시 내 상업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도시 내 주거지역(21.8%), 공업지역(19.6%), 농어촌 지역(19.7%)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사고유형의 차이를 살펴보면 폭발사고(67.8%), 화재사고(55.6%), 이물질 흡입이나 섭취한 사고(52.4%), 부패 변질된 물체를 접촉한 사고(51.9%)의 경우 도시 내 상업지역에서 절반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시 내 주거지역은 충돌이나 충격을 받아 다친 사고(25.5%), 날카로운 물체에 베이거나 찢린 사고(24.7%), 추락/넘어짐/미끄러져 다친 사고(24.0%)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공업지역은 날카로운 물체에 베이거나 찢린 사고(22.4%), 추락/넘어짐/미끄러져 다친 사고(22.1%), 충돌이나 충격을 받아 다친 사고(21.9%)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농어촌 지역은 추락/넘어짐/미끄러져 다친 사고(22.4%), 날카로운 물체에 베이거나 찢린 사고(22.0%)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지역별로 다발하는 안전 사고 유형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청소년들이 경험한 안전사고가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은 이러한 안전사고를 저감시키는 방안도 지역별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즉, 도시상업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고 유형인 폭발 및 화재 사고의 원인은 한국소비자원의 통계에 의하면 휴대용 버너, 압력밥솥 등의 식생활기기 및 가사용품과 영상기기 등의 문화용품과 휴대폰 배터리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들 상업지역의 관련 설비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청소년의 안전사고도 저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물질 흡입이나 섭취, 부패 변질된 물체 접촉은 학교 주변이나 거주지 근방의 안전하지 않은 먹거리나 유해물질 방출 업소를 지속적으로 단속함으로써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도시 내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은 충돌이나 충격을 받아 다친 사고, 날카로운 물체에 베이거나 찢린 사고, 추락/넘어짐/미끄러져 다친 사고

의 발생이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이러한 안전사고의 주된 원인인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등 스포츠·레저용품의 품질 개선 및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변 환경 점검(자전거 운행로 확보 등)과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공사 등으로 인한 위험 요인 제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 이용 시설 위험 요인 제거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의 안전대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지역은 추락/넘어짐/미끄러져 다친 사고나 날카로운 물체에 베이거나 찢린 사고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된 바, 지역특성상 생산활동 현장이 주거지역 및 통학로와 인접한 만큼 농로와 보행자 통로 등의 구분 등을 점검하거나 농기계, 농약 등 농어촌지역에서만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등의 차별화된 안전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거주지역별(도시내 상업지역, 도시내 주거지역, 공업지역, 농어촌지역별)로 높은 사고유형을 보면, 도시상업지역에서 폭발 및 화재 사고,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은 충돌이나 충격을 받아 다친 사고, 농어촌 지역은 추락/넘어짐/미끄러져 다친 사고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날카로운 물체에 베이거나 찢린 사고도 대체적으로 높게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안전교육 뿐만 아니라 거주지역별 차별화된 안전교육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청소년이 이용하는 여가 및 놀이시설 안전 강화 대책 필요

청소년들이 방과 후에 주로 활동하는 장소인 여가 및 놀이시설에 대한 점검에서 부정적인 응답이 높았던 순서는 주변의 쓰레기 정돈, 시설물의 노후 및 수도시설 및 청결상태 미비, 시설주변의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 미설치 등의 순으로 지적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여가 및 놀이시설에서 주로 발생하는 사고유형이 ‘물체에 눌리거나 끼인 사고’와 ‘교통사고’임을 볼 때, 여가 및 놀이시설의 설비의 노후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위험요인이 상존

하고 있는 시설물 등이 주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현재 10세 이하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의 놀이기구(『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공산품임)가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은 2008년 제정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하여 안전관리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동법이 도입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여서 실제 동법에 의거하여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지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또한 동법은 10세 이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놀이시설에 국한되어 있어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이나 근린시설 등과 같은 여가 및 놀이 시설들은 안전점검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

따라서 여가 및 놀이시설에서 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 유형인 ‘물체에 눌리거나 끼인 사고’의 주된 원인이 전술한 바와 같이 토지·건물·설비(41.5%)임을 감안할 때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원 및 근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가 및 놀이시설에서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사고유형인 ‘교통사고’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여가 및 놀이시설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보행자와 차량, 보행자와 자전거 또는 이륜자동차와의 사고로 나뉘어 질 수 있겠다. 여가 및 놀이시설 점검사항에서 시설과 차도의 분리로 인한 안전거리 확보, 시설 주변의 가로등 시설 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높은 것으로 볼 때, 주로 일어나는 사고유형은 자전거나 이륜자동차와 보행자와의 안전사고로 추정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시설내의 자전거 전용도로와 놀이공간이 구별되어 있는 지, 이륜자동차의 출입이 빈번한 지 등에 대한 추가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관련 교통사고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더불어 조사결과에서 이들 시설 주변의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가 높았다는 점에 비추어 학교 주변과 함께 어린이·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여가 및 놀이시설 등에 대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청소년들이 방과 후에 주로 활동하는 장소인 여가 및 놀이시

설에 대한 설치시 시설안전기준의 의무화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관리의 의무화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능하면 읍·면·동에서 상거시설을 감독·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상거시설을 설치 또는 보유하고 있는 곳에서는 관리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야 한다. 상거시설에 대한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 등 출입을 금지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것도 필요하고,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드 보드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따로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5) 문구점 등 안전사고 다발 물품을 제공하는 학교 주변 상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 모니터링 및 여론 환기 필요

이번 조사 결과, 도시 상업지역에서 이물질 흡입·섭취사고와 부패변질된 물질 접촉 사고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경험비율이 가장 높았던 항목이 ‘학교주변에서 불량식품을 판매하고 있다(80.4%)’는 결과는 아직도 거주지와 학교주변의 상업장에서 청소년들에게 관련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물품 등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2009년 봄,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용품’ 56개 제품을 무작위로 수거하여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색연필류, 스티커류 등에서 카드뮴과 환경호르몬 추정물질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일종인 DEHP가 각각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었으며 현재 안전기준이 없는 클립(clip), 흡착판(공예재료), 수저가방 등의 문구류에서 납, 크롬 등 중금속과 DEHP가 다량 검출되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칼라폰선에서는 현재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된 환각물질(초산에틸)⁹⁾도 검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9) 초산에틸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청소년보호법』에서 ‘환각물질’과 ‘청소년 유해약물’로 분류하여 동 물질이 함유된 제품은 청소년(만 19세 미만)에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밖에도 학교주변의 소규모 식품판매업소나 문구점 등에서 판매하는 식품류 일부에서 대장균과 식중독균, 사용금지된 합성보존료 등이 검출되고 식품용기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이 검출된 바 있으며¹⁰⁾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분식점·슈퍼마켓 등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게임물(기기)이 도로변 또는 인도 등 영업소(일반 영업소) 밖에 안전장치 없이 설치됨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에 노출되는 사고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¹¹⁾.

학교와 거주지 주변의 문구점과 분식점 등 소형 영업장들은 일률적인 규제방안을 도입하기는 어렵고 그 실효성도 떨어지는 바, 학부모와 학교, 관계 기관 및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안전을 모니터링하고 여론을 환기시키는 활동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문구점 등 안전사고 다발 물품을 제공하는 학교 주변 상업장에 대한 학부모와 학교,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안전을 모니터링하고 여론을 환기시키는 활동이 계속되어야 한다. 그리고 차후에는 학교와 거주지 주변의 문구점과 분식점 등 소형 영업장들은 일률적인 규제방안도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구분	지역 및 시설	기구 및 용품	안전사고 물품 관리	안전장비 착용의무화
공통 사항	o 스쿨존 확대 및 안전 시설 강화	o스포츠·레저용 품의 안전기준 강화	o안전사고 다발 물품을 제공하는 학교 주변 상업장 관리·감독 필요	o 스포츠·레저 활동시 안전장비착용 의무화
	o 여가 및 놀이시설에 대한 설치시 시설안전기준 강화 및 체계적인 관리 의무화			
지역별 특성 고려	o 도시내 상업지역, 도시내 주거지역, 공업지역, 농어촌지역별 안전대책 마련 필요			

10) 한국소비자원의 “초등학교 주변 식품의 안전실태” (2002년) 조사보고서 인용

11) 한국소비자원의 “초등학교 주변 게임물 안전실태조사” (2003년)조사보고서 인용

6) 아동·청소년의 일몰 후 안전방안 강구

- 인라인, 자전거 등 바퀴달린 놀이기구의 야광 표시 의무화 방안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일몰 후 활동 안전을 위해 아동·청소년 대상 의류·신발 및 소지품(가방 등) 제조 시 야광표시 의무화 및 야간 시 식별을 용이하게 하는 색상 위주로 제작토록 업계 자율기준을 권고해야 할 것이다.

7) 안전 취약계층(도시 내 상업지역의 저소득 맞벌이 가정 등)의 자녀들을 위한 안전대책 방안 필요

- 맞벌이 부부 자녀, 특히 저소득 계층의 유해환경 접촉도가 높으며 이들의 안전사고 경험율과 활동시간 및 활동공간에서 외벌이 자녀들과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이들 자녀들에 대한 학교나 학원, 지역사회가 연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이 시급하다.
- 특히 저소득층 맞벌이 자녀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의 강화가 필요하다.

<참조사항 >

< 자전거 이용 관련 법규 >

☐ 자전거 이용기준 관련 법률

- 자전거의 통행 우선순위, 통행방법, 설계속도 등 자전거 이용자의 통행에 관한 전반적인 기준 제시.

－ 『도로교통법』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 용어정의, 보행자 및 차마의 통행방법, 운전자의 의무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

·자전거는 동법에서 차로 구분되어 있으나 세부적인 법적 정의는 누락되어 있고 보행자 통행방법에서는 교통약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 도로에서 어린이가 자전거 또는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타는 때에는 어린이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함.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③ 어린이의 보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이 빈번한 도로 외의 도로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거나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타는 때에는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위반시 범칙조항 없음.

·차의 통행방법으로서 통행우선순위, 교차로 통행방법, 보행자 보호의무 등을 정의하고 있으나, 자동차 중심으로 정의되어 있어 자전거 이용자 통행 방법 누락 및 적용에 한계가 있음.

※ 차마(車馬)의 통행우선 순위는 통행 목적에 따른 속도를 기준으로 긴급 자동차, 일반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기타 차마(자전거, 건설기계)의 순으로 정의됨.

※ 진로양보의 의무로서 자전거 이용자는 통행우선 앞 순위의 차가 뒤를 따라오는 경우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함.

－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전거 이용시설의 유치, 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자전거 도로 이용방법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법률로서 통행방법, 이용제한, 자전거 등록, 자전거 교육 등의 기준을 제시함.

제21조(자전거타기의 교육등)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자전거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자전거의 등록) 자전거를 소유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에 한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다

·자전거 도로의 유형별(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자동차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도로) 통행허용 및 제한사항 규정.

□ 자전거 도로 구조 및 설계 기준

- 자전거도로의 정의, 설치유형, 설계기준 등 자전거도로 설치 및 노선지정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기준을 제시함.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도시계획 시설로서 자전거 도로는 사용 및 형태, 도로기능에 따라 구분되며, 결정기준과 구조, 설계기준을 명시하고 있음
 -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 용어정의, 자전거도로 설치장소 및 이용제한에 따른 노선지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자전거 도로 설치 유형구분

구 분	내용
자전거 전용도로	- 자전거만通行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通行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자전거도로
자전거 자동차 겸용도로	- 자전거 외에 자동차도 일시通行할 수 있도록 차도에 노면표시로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참 고 문 헌

- 곽금주(2007). 2007년 어린이 안전사고 유형별 실태조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국 리콜제도팀.
- 곽숙영(2006). 한국의 아동안전 정책방향, 어린이안전대토론회, 보건복지가족부.
- 권기창·이종영·곽영호·윤선화·정윤경·황정미(2006). 아동 안전사고 효과적 대응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체계 개발, 보건복지부·한국생활안전연합.
- 경찰청(2009). 2009년판 교통사고 통계(2008년 사고)
- 김동호(2005).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경호활동 - CPTED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승권·윤선화·김형욱·정윤경·이주영(2008). 제2차 아동안전종합대책 5개년 계획 수립 연구,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승준(2007). 자치구 단위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교통개선사업 추진방안, 한국시정개발연구원.
- 김영환(2008). 청소년유해업소구분기준 및 지역사회 유해환경 감소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보건복지가족부.
- 김영환(1997). 청소년 유해매체물관리, 규제를 위한 법적장치연구, 형사정책연구, 8(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남해성·손명호·권순석·김영복(2002). 일개광역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의 보행자 안전도 실태 조사, 보건복지부.
- 노정근(1998). 학교안전과목 교육과정과 안전사고실태에 관한 고찰: 경기도 안전공제회 소속 학교를 중심으로, 한국안전교육학회지, 2(1), 5-15.
- 도로교통안전협회(1996). 청소년 교통안전 교육과정 및 체제에 관한 국제 비교연구.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2007).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예방 대책에 관한 연구, 서울: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 도미향(2002). 청소년 유해업소의 실태와 복지대책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4(2), 한국청소년복지학회.
- 박영신(2003). 한국 청소년의 안전에 대한 토착심리분석: 안전사고에 대한 표상과 안전효능감 및 부모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9, 89-105.
- 박현호(2006). 한국적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의 제도적 고찰. 유럽의 사례를 통한 한국에서의 적용을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5(2).
- 박혜숙·고상백·이본은(2006). 선진국수준의 아동안전통계 구축방안 연구, 보건복지부·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 배정미(2002). 초등학교의 안전사고 실태 및 예방 전략에 관한 조사연구, 아동간호학회지, 8(4).
- 보건복지부(2001). 아동건강을 위한 안전기준에 관한 연구,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2008)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법(안).
- 보건복지부(2008) 청소년보호법 원문.
- 성윤숙(2008). 안전한 학교만들기 위한 학교 안전지표 개발 연구, 충남교육청·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송현종(2006). 아동안전사고의 현황 및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89-98.
- 심영희(1998). IMF시대의 청소년문제 양상과 과제: 위험사회의 관점에서, 청소년학 연구, 5(3), 15-145.
- 윤선화(2003). 아동사고 사망요인에 따른 아동안전정책분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선화(2007). 참여정부의 아동안전정책 평가와 과제, 어린이안전토론회 자료집, 한국소비자원.
- 이광호(1992). 청소년 유해환경과 규제의 정당성, 한국청소년연구, 9, 1992 여름호(편역).
- 이기정(2006). 서울시 초등학교 주변 유해환경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명숙(1996). 청소년 유해환경 규제기능 강화,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호룡(2002). 사이버 공간에서의 유해정보와 청소년 보호 - 규제와 자율에 관한 담론, 인터넷법률 통권, 12, 서울: 법무부.
- 임송자(2008). 스쿨존 - 어린이 교통안전, 한국아동단체협의회.
www.kocconet.or.kr
- 질병관리본부(2005). 손상감시정보 통계조사.
- 통계청(2006). 사망원인통계연보.
- 한혜경(1997). 아동안전실태와 정책과 대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 황성기(2001). 청소년보호를 위한 표현물규제시스템의 헌법적 고찰, 공법연구, 제29(3), 한국공법학회.
- 황성철(1998). 아동의 건강 및 보건과 안전, 국제협약, 아동발달과 보육, 모자보건과 안전, 가족지원.
- 한국소비자원(1995). 어린이 안전제도 개선방안.
- 한국소비자원(2002). 초등학교 주변식품의 안전실태.
- 한국소비자원(2003). 초등학교 주변 게임물 안전실태조사.
- 한국소비자원(2004). 어린이 일몰 후 활동 안전실태조사.
- 한국소비자원(2006). 2006년 상반기 위해정보 통계분석 자료, 소비자안전센터 위해분석팀.
- 한국소비자원(2007). 어린이 안전사고 유형별 실태조사, 소비자안전국 리콜제도팀.
- 한국소비자원(2007). 어린이 안전사고 실태 및 개선방안.
- 한국소비자원(2009). 2008년도 소비자위해정보 주요통계분석.
- 한국소비자원(2009). 자전거 안전실태조사.
- 한국소비자원(2009). 초등학교 주변 판매 상품 안전실태 모니터링.

Berfenstam, R. & Soderquist, I.(1991). The Rights of Children to safe Environment - Swedish Laws and Regulations.

Sleet, D. Bonzo, & Branche, C.(1998). An Overview of the National Center for Injury Prevention and Control at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Injury Prevention, 4, 308-312.

UNICEF(2001) 유니세프 부유국 아동 상해사망 보고서 <http://www.unicef.or.kr/>
어린이 안전학교(2009). <http://www.g0119.org/>

부 록

1. 설문지

부록 1. 설문지



이 설문에서 얻어진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13조 및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ID —

아동·청소년 안전 실태와 대응 방안 연구 실태 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정책연구원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각종 조사 연구와 정책개발 업무를 담당·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아동·청소년들의 학교주변, 주요이동로, 집주변의 안전관련 환경 실태 조사를 통하여 아동·청소년의 물리적 문제 환경 개선에 도움 되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시됩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해 주신 조사내용은 실질적인 아동·청소년 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의견이 정확하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솔직하고 성실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본 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9. 1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락처 : 김 영 한 02-2188-8845. 8865

주소 : (137-715)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http://www.nypi.re.kr>

1. 2009년도에 여러분이 아래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고를 당한 경험이 있는 장소를 모두 골라 주십시오. (사고경험이 없는 분은 4번 문항으로 가십시오)

내 용	학교 주변	집주 변	통학 로	여가 놀이 시설	학원 주변	기타 장소
추락/넘어짐/미끄러져 다친 사고 경험	1	2	3	4	5	6
충돌이나 충격을 받아 다친 사고 경험	1	2	3	4	5	6
화재사고 경험	1	2	3	4	5	6
날카로운 물체에 베이거나 찔린 사고경험	1	2	3	4	5	6
이물질 흡입이나 섭취한 사고 경험	1	2	3	4	5	6
교통사고 경험	1	2	3	4	5	6
물체에 눌리거나 끼인 사고 경험	1	2	3	4	5	6
폭발사고 경험	1	2	3	4	5	6
부패 변질 된 물체를 접촉한 사고	1	2	3	4	5	6
기타 다른 사고 경험	1	2	3	4	5	6

2. 2009년도에 여러분이 아래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고를 당한 시간대를 골라 주십시오. (학교나 집에서 발생한 사고 제외)

내 용	오전 12시이전	오후 1시-7시	밤 8시 이후
추락/넘어짐/미끄러져 다친 사고 경험	1	2	3
충돌이나 충격을 받아 다친 사고 경험	1	2	3
화재사고 경험	1	2	3
날카로운 물체에 베이거나 찔린 사고경험	1	2	3
이물질 흡입이나 섭취한 사고 경험	1	2	3
교통사고 경험	1	2	3
물체에 눌리거나 끼인 사고 경험	1	2	3
폭발사고 경험	1	2	3
부패 변질 된 물체를 접촉한 사고 경험	1	2	3
기타 다른 사고 경험	1	2	3

3. 2009년도에 여러분이 다음의 신체부위에 대한 사고경험 유무를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내 용	다친 경험이 있다	다친 경험이 없다
머리 부분	1	2
얼굴 부분	1	2
어깨 또는 가슴부분	1	2
허리 또는 엉덩이(골반)부분	1	2
팔 또는 다리부분	1	2
내장기관 부분	1	2
기타	1	2

4. 여러분이 통학 할 때 주로 이용하는 이동수단과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을 선택해주십시오.

이동수단	걷기	자전거	버스	자가용
	1	2	3	4
이동시간	10분 이내	30분 이내	1시간 이내	1시간 이상
	1	2	3	4

5. 여러분의 집에서 학교까지 등교하는 이동 환경에 대한 점검사항입니다. 내용을 확인 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 용	없다	일부 있다	모두 있다
차도와 인도는 분리되어 있다	1	2	3
통학로의 횡단보도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있다	1	2	3
통학로에는 안전펜스가 있다	1	2	3
교통 안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	1	2	3
학교 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표시되어 있다	1	2	3
통학 또는 학원승하차 장소는 별도로 지정되어 있다	1	2	3
통학로에는 방치된 물건이 쌓여져 있다	1	2	3
통학로에는 차들이 주차 지정 표시 장소가 아닌 곳에 세워져 있거나 멈춰있다	1	2	3
등교 시 교통지도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다	1	2	3
하교 시 교통지도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다	1	2	3

6.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여가 및 놀이 시설에 대한 점검사항입니다. 내용을 확인 후 선택하여 주십시오.

내 용	그렇다	아니다
여가 및 놀이시설은 집에서 매우 가깝게 있다	1	2
시설과 차도는 분리되어 있어 안전거리가 확보되어 있다.	1	2
주변에 쓰레기통이 설치되어 있다	1	2
주변 곳곳에 쓰레기가 없이 잘 정돈되어 있다	1	2
시설은 항상 개방되어 있다	1	2
뜨거운 햇볕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1	2
시설 주변에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이 있다	1	2
시설 주변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밤에도 밝다	1	2
시설 주변에는 울타리가 설치되어 보호되고 있다	1	2
시설과 시설은 서로 안전하게(2.5m이상) 떨어져 있다	1	2
시설물은 녹이 슬거나 벗겨지지 않았다	1	2
수도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청결하다	1	2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고 사용가능하다	1	2

7. 아래내용은 우리주변에 있는 시설입니다. 여러분이 어제(평일)하루 동안 본 적이 있는 시설이나 가게를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 본 적이 있다면 어제 하루 동안 몇 번 정도 보았는지 적어 주십시오.

내 용	전혀 보지 못함	가끔 본다	자주 본다	매우 자주 본다	모르 겠다	어제 본 횟수?
① 증기탕/안마시설/모텔이나 여관/나이트클럽/룸살롱/단란주점/ 전화방/24시간휴게텔/성인숙	1	2	3	4	5	
② 호프집/소주방/기타술집	1	2	3	4	5	
③ 다방/비디오방/커피숍/성인오락실 /성인전용 PC방	1	2	3	4	5	
④ 노래방/커피숍/24시간편의점	1	2	3	4	5	
⑤ PC방/비디오, 민화책 대여점/당구장	1	2	3	4	5	

내 용		전혀 보지 못함	가끔 본다	자주 본다	매우 자주 본다	모르 겠다	어제 본 횟수?
⑥	학원	1	2	3	4	5	
	도서관이나 독서실	1	2	3	4	5	
	공원	1	2	3	4	5	
	서점	1	2	3	4	5	
	공연장/극장	1	2	3	4	5	
	경찰서/소방서등 관공서	1	2	3	4	5	
	복지시설/체육시설	1	2	3	4	5	

8. 아래내용은 여러분의 학교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내용을 확인 후 선택하여 주십시오.

내 용	매우 많다	가끔 있다	거의 없다	전혀 없다
학교주변에서 학생들이 돈이나 물건을 빼앗기는 경우가 있다	1	2	3	4
학교주변 가게에서 술담배를 사는 친구가 있다	1	2	3	4
15세 이상 표시가 되어 있는 영상물(비디오, DVD)을 빌려보는 친구가 있다	1	2	3	4
책(만화)방에서 미성년자 관람불가 표시가 된 책(만화)을 보는 친구가 있다	1	2	3	4
학교주변에서 폭행을 당한 친구가 있다	1	2	3	4
밤 10시 이후 PC방에서 게임하는 친구가 있다	1	2	3	4
학교 주변에는 야한 사진이나 광고지를 많이 볼 수 있다	1	2	3	4
학교 주변이 지저분하다	1	2	3	4
학교 주변에서 불량식품을 판매하고 있다	1	2	3	4

9. 어제(평일) 하루를 기준으로 아래 제시한 시간에 어느 곳(장소)에 있었습니까. 해당 장소를 확인 후 선택하여 주십시오.

구 분	집주변	학교 주변	여가 및 놀이터	학원	학교	집	기타 이동 등
14:00시 이전	1	2	3	4	5	6	7
14:00-14:59	1	2	3	4	5	6	7
15:00-15:59	1	2	3	4	5	6	7
16:00-16:59	1	2	3	4	5	6	7
17:00-17:59	1	2	3	4	5	6	7
18:00-18:59	1	2	3	4	5	6	7
19:00-19:59	1	2	3	4	5	6	7
20:00시 이후	1	2	3	4	5	6	7

10. 다음은 일반적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 번호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1)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2)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 같이 살고 있진 않지만, 다른 지방의 직장·학교에 다니는 등의 이유로 같이 살지 않는 가족은 포함(단, 결혼해서 같이 살고 있지 않은 형제자매는 제외합니다.)

1) (외)할아버지 2) (외)할머니 3) 아버지 4) 어머니
5) 형제 또는 자매 6) 기타 친척 7) 기타_____ 8) 없음

(3) 형제자매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____남 ____녀 중 ____째 (예) 1남 1녀 중 첫째)

(4) 부모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나요?

부모님 각각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단, 중퇴도 졸업으로 봅니다)

	학 교 안다님	초등학 교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 교졸업	2-3년제 대학졸업	4년제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
(1)아버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어머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부모님께서서는 현재 직업을 갖고 계신가요?

부모님 각각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현재 직업을 갖고 있는지 여부	
	없음	있음
(1)아버지	①	②
(2)어머니	①	②

(6) 가정형편(경제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매우 못 산다 보통 수준 매우 잘 산다 <----- -----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어디입니까?

()시/도 ()시/군/구 ()구 ()동/읍/면

(8) 반에서의 학업성적(2009년 1학기)은 대략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으므로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매우 못하는 수준	못하는 수준	중 간	잘하는 수준	매우 잘하는 수준
①	②	③	④	⑤

☆ 빠진 문항이 없는지 살펴봐 주십시오.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9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 기관고유과제

- 09-R01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VII : 1-6차년도 조사개요 보고서 / 이경상 · 안선영
- 09-R01-1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VII : 생활긴장과 청소년 비행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이경상 · 이순래
- 09-R01-2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VII :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안선영 · 장원섭
- 09-R01-3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VII : 아동 · 청소년패널조사 2010 기초연구 / 김지경 · 안선영 · 이계오 · 이미리 · 김성식 · 김명희 · 박일혁
- 09-R02 아동 · 청소년 정책평가모형 개발 연구 : 고객지향 평가모형을 중심으로 / 김형주 · 김영애 · 조선하
- 09-R03 비행청소년 멘토링 운영을 위한 다기관 협력체제 구축방안 연구 / 김지연 · 김성연
- 09-R03-1 비행청소년 멘토링 운영을 위한 다기관 협력체제 구축방안 연구 : 비행청소년 멘토링 운영지침 개발 / 김지연
- 09-R04 지역사회 아동 · 청소년인프라 활용방안 연구 : 학교와의 연계를 중심으로 / 최창욱 · 송병국 · 김혁진
- 09-R05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실태와 대응방안 연구 / 성운숙 · 박병식
- 09-R06 아동청소년안전실태와 대응방안 연구 : 물리적 위해를 중심으로 / 김영한 · 최은실
- 09-R07 위기가정 아동 · 청소년의 문제와 복지지원방안 연구 : 빈곤한 한부모 · 조손가정 아동 · 청소년을 중심으로 / 이해연 · 이용교 · 이향란
- 09-R08 청소년 가출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연구 / 백혜정 · 방은령
- 09-R09 세대간 의식구조 비교를 통한 미래사회변동 전망II / 이종원 · 김영인
- 09-R10 아동 · 청소년 비만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 임희진 · 박형란
- 09-R11 청소년의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가족단위 여가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 이기봉 · 설수영 · 원형중 · 설민신
- 09-R12 한국 청소년 지표조사IV : 청소년 진로 · 직업 지표 / 최인재 · 김봉환 · 황매향 · 허은영
- 09-R12-1 한국 청소년 지표조사IV : 아동 · 청소년 활동 · 문화 지표 / 임지연 · 김정주 · 김신영 · 김민
- 09-R13 국제기준 대비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IV : 생존 · 보호권 인권실태조사 / 모상현 · 김희진
- 09-R13-1 국제기준 대비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IV : 생존 · 보호권 정량지표 / 모상현 · 천정웅 · 신승배 · 이중섭

- 09-R14 미래 한국사회 다문화 역량강화를 위한 아동·청소년 중장기 정책방안 연구 I / 양계민·조혜영·이수정
- 09-R15-1 조기유학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과 정책방안 연구 I : 귀국 청소년의 정체성에 대한 질적 연구 / 문경숙·윤철경·임재훈
- 09-R15-2 조기유학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과 정책방안 연구 I : 청소년 조기유학의 결과와 정책방안 / 윤철경·문경숙·송민경
- 09-R16 아동·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 총괄보고서 / 황진구·김진호·임성택·주동범
- 09-R16-1 아동·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 / 문성호·임영식·문호영·김남정·한지연
- 09-R16-2 아동·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 장애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 / 박영균·김동일·김성희
- 09-R16-3 아동·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 청소년의 역량개발 / 이민희·강병로
- 09-R16-4 아동·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 범죄청소년의 자립지원 방안 / 최순종·윤옥경·조남익
- 09-R17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비한 청소년인재개발전략에 관한 국제학술회의 / 이창호·오해섭

■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1-01**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I : 총괄보고서 / 박영균·박은혜·이상훈·최은영·Elmar Lange (자체번호 09-R18)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1-02**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I : 장애아동·청소년 가족 지원방안 / 서정아·조흥식·김진우 (자체번호 09-R18-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1-03**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I : 교수·학습활동 지원정책 / 박재국·정대영·황순영·김영미·김혜리 (자체번호 09-R18-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1-04**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I : 장애아동·청소년의 심리사회, 정서, 신체적 발달 지원방안 / 현주·박현옥·이경숙·김민 (자체번호 09-R18-3)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1-05**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I :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방안 / 김종인·김원경·고정욱·오이표 (자체번호 09-R18-4)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1-06**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I : 재활복지서비스 제고방안 / 권선진·이근매·조용태 (자체번호 09-R18-5)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2-01**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Ⅱ :
총괄보고서 / 김기현·맹영임·장근영·구정화·강영배·조문흠 (자체번호 09-R19)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2-02**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Ⅱ : 지적
도구 활용 영역 / 최동선·김나라·김성남 (자체번호 09-R19-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2-03**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Ⅱ : 사회적
상호작용 영역 / 김태준·김낭향 (자체번호 09-R19-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2-04**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Ⅱ : 자율적
행동 영역 / 김기현·맹영임·장근영·구정화·강영배·조문흠 (자체번호 09-R19-3)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2-05**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Ⅱ : 사고력
영역 / 조아미·김정희·설현수·정재천 (자체번호 09-R19-4)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2-06**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Ⅱ :
총괄보고서 부록 / 김기현·맹영임·장근영·구정화·강영배·조문흠 (자체번호 09-R19-5)

■ 수시과제

- 09-R20 경제 위기에서 빈곤 아동·청소년의 생활실태 / 모상현·김영지·김희진·정익중
- 09-R21 한국 청소년정책 20년사 : 한국 청소년정책의 성과와 전망 /
김광웅·이종원·천정웅·이용교·길은배·전명기·정효진
- 09-R22 청소년지도 전문인력 국가자격검정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한상철·서정아·길은배·
김진호·김혜원·문성호·박철웅·방은령·송민경·송병국·오승근·유진이·조아미
- 09-R23 아동청소년 국가기초통계생성을 위한 기초 연구 /
김기현·홍세희·설현수·유성렬·정익중
- 09-R24 청소년쉼터 운영 모형개발을 위한 연구 / 백혜정·정익중·박현선·천창암·박현동
- 09-R25 녹색성장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인지도 조사 / 김승경·김지경·성운숙
- 09-R26 한·중·일 고교생의 학습환경 및 학업태도에 관한 국제비교조사 /
김진숙·임희진·김현철 (2010년 발간)
- 09-R27 서머타임제 시행에 따른 아동·청소년 생활시간 연구 / 김희진·진미정 (2010년 발간)
- 09-R28 교육봉사를 통한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정책 시범연구 /
모상현·김성희·박영숙·이명균 (2010년 발간)

■ 용역과제

- 09-R29 2009 취약위기 아동청소년 보호자립 실태조사 /
이경상·임희진·안선영·김지연·강현철·김광혁·김기남·박창남

- 09-R30 2009 소외계층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만족도조사 / 백혜정
- 09-R31 2009년 아동보호전문기관 평가 결과보고서 / 김영지·성운숙
- 09-R32 2009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연구 / 양계민·조혜영
- 09-R33 청소년 양성평등 의식조사 / 장근영·이종원
- 09-R34 대중매체를 통한 다문화사회 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 이창호
- 09-R35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 중장기발전방안 연구 / 오해섭·박진규·박정배
- 09-R36 2009년 지역아동센터 평가편람 개발연구 / 황진구·김미숙
- 09-R37 아동청소년의 생활패턴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 김기현·안선영·장상수·김미란·최동선
- 09-R38 통합 아동·청소년정책 추진전략연구 /
윤철경·박영균·성운숙·문경숙·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등 30개 기관
- 09-R39 형사조정실무가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 개발 / 최창욱·박수선
- 09-R40 2009 아동·청소년백서 / 김기현·김지경·임희진
- 09-R41 열린장학금 효과성 및 발전방안 연구 / 최창욱·이기봉·최인재
- 09-R42 청소년관련학과 현장실습 교육과정 표준 매뉴얼 개발 / 맹영임·전명기
- 09-R43 2009 서울시 청소년 문화·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평가 / 임지연·김형주 (2010년 발간)
- 09-R44 시립청소년수련관 운영체계 효율적 개선 방안 연구 /
김영한·이혜연·서정아·홍연균·유진이·김영호·김광남·황성수(2010년 발간)
- 09-R45 청소년 사이버멘토링 효과성 연구 / 조혜영·양계민 (2010년 발간)
- 09-R46 공공-민간협력 비행청소년 멘토링 시범사업 / 김지연 (2010년 발간)

■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09-s01 지역아동청소년권리센터 시범사업지원단 4차 워크숍 (1/21)
- 09-s02 경제위기가 아동과 청소년에게 주는 고통 (2/27)
- 09-s03 청소년 지도 인력의 전문성 강화 방안 (3/12)
- 09-s04 아동·청소년 권리지표 및 지수개발을 위한 워크숍 (4/11)
- 09-s05 녹색성장 강화와 글로벌 인재개발 전략 (4/16)
- 09-s06 독일의 장애아동·청소년 지원 정책 (5/25)
- 09-s07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비한 청소년 인재개발전략 (6/25)
- 09-s08 2009년 한국청소년패널 콜로키움 자료집 (7/8)
- 09-s09 비행청소년 멘토링 운영지침 및 운영체계 개발 (6/26)
- 09-s10 한국의 다문화주의와 아시아 아메리칸의 인종적 경험 (7/14)
- 09-s11 2009 서울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평가위원 워크숍 (7/20)
- 09-s12 아동청소년조기 유학 적응과 글로벌 역량개발 (7/21)
- 09-s13 아동청소년 생활 패턴과 역량강화 세미나 (7/22)

- 09-s14 선진국의 장애아동·청소년 지원정책 국제세미나 (8/28)
- 09-s15 2009년 한국청소년 패널 데이터 분석 방법론세미나 자료집 (8/26)
- 09-s16 다문화 청소년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8/25)
- 09-s17 청소년의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가족단위 여가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워크숍 (9/18)
- 09-s18 형사화해 조종실무가(조정위원)연수 자료집 (10/7)
- 09-s19 아동·청소년 활동문화 현황 과제 (10/15)
- 09-s20 한·일 청소년 연구포럼: 노동·교육 그리고 가족에 대한 한일 비교 (10/27)
- 09-s21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현황과 정책방향성 제고를 위한 전문가 워크숍 (10/29)
- 09-s22 한국 청소년 진로·직업 실태 및 향후 전망과 정책적 과제 (11/6)
- 09-s23 여성 청소년의 인터넷 성매매 방지를 위한 정책 방안 (11/10)
- 09-s24 2009년 한국청소년패널 제2차 콜로키움 자료집 (11/18)
- 09-s25 청소년 관련학과 현장실습 매뉴얼(안) 개발 및 효율성 제고 방안 (11/18)
- 09-s26 청소년 가출 예방 및 지원방향과 과제 (11/19)
- 09-s27 제6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 대회 (11/27)
- 09-s28 2009년 한국청소년패널 제3차 콜로키움 자료집 (11/22)

■ 학술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0권 제1호(통권 제52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0권 제2호(통권 제53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0권 제3호(통권 제54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0권 제4호(통권 제55호)

■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⑧ 「청소년인권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 기타 발간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타 발간물 01 「자녀의 성공을 위해 부모가 함께 읽어야 할 73가지 이야기」, 다슬
NYPI YOUTH REPORT 창간호 : 경제위기와 빈곤 (4월)
NYPI YOUTH REPORT 2호 : 다문화와 탈북청소년 (6월)
NYPI YOUTH REPORT 3호 : 글로벌 환경변화 청소년 (8월)
NYPI YOUTH REPORT 4호 : 글로벌 인재와 청소년 (10월)
NYPI YOUTH REPORT 5호 : 청소년 인권 (11월)
NYPI YOUTH REPORT 6호 : 청소년들의 정보이용 현황 (12월)

연구보고 09-R06

아동 · 청소년의 안전실태와 대응방안 연구

—물리적 위해를 중심으로—

인 쇄 2009년 12월 31일

발 행 2009년 12월 31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발행인 이 명 숙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문영사 02)2263-5087

사전 승인 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77(연구기획팀)

ISBN 978-89-7816-788-8(93330)